



[뉴스]
삼성 '갤럭시S9'
사전예약만으로
평가 이끈다
03



코스피 2494.49 (+10.37)	코스닥 886.25 (+1.98)
금리 (국채 3년) 2.30 (변동없음)	환율 (USD-원) 1067.50 (+2.30)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특위 '개정 자문안' 대통령 보고 4년 연임·결선 투표 5·18 헌법전문 포함

文 “국회 개헌 약속 안 지켜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 아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중한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정해구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민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본격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위는 또 국경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과이고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눠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속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승호 기자

“땡땡~ 택배왔습니다” 한국은 택배공화국

5兆 시장 급성장한 택배산업 배달 단가는 역대최저 ‘역주행’

(박스당 2248원)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에
업계, 배달 단가 인상 추진
유통업계 반발이 최대변수

‘23억1946만 상자(20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25만명(2016년 기준)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45.3개꼴...’

지난해 대한민국 택배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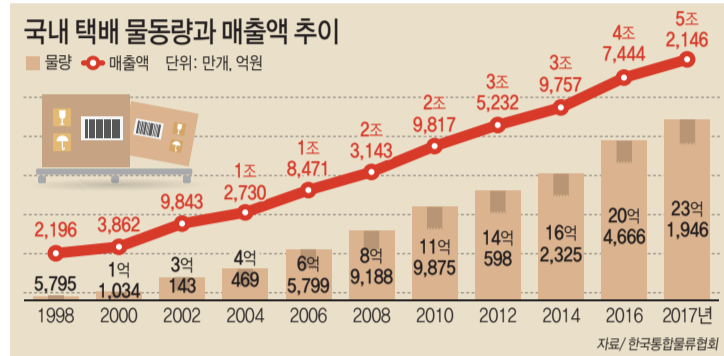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국민 1인당 지난해 한 달 평균 3.8개씩의 택배를 받은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아빠보다 매일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를 전달하는 택배기사야 더 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시장이 만든 못지못할 풍경이다.



아베 만난 서훈 국정원장

13일 서훈 국정원장이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택배가 199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로 27년째를 맞으며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92년 1월 한진이 '파발마'라는 이름으로 택배업에 첫 발을 들여 났고, 지금은 CJ대한통운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통운이 이듬해인 93년에 뛰어들었다.

한진은 당시 7곳의 터미널과 18곳의 집배센터, 집배송 차량 52대, 지게차 7대, 트랙터 6대로 사

업을 시작했다.

'대한통운특송'이라는 브랜드로 택배업을 선보인 CJ대한통운은 후발주자였지만 양쪽으로 문이 자동 개폐되는 적재차량 '윙바디 트랙'을 선보이며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택배업체인 UPS와 페덱스 등이 전세계 대리점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진출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여서 국내 물류회사들도 대항사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위해 여러 준비를 통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25년이 훌쩍 넘은 국내 택배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8년 당시 택배는 5795만 상자, 업계 총 매출은 2196억원에 그쳤다.

그러다 2009년 10억 상자, 2016년 20억 상자가 각각 넘어서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23억1946만 상자를 실어날랐다. 19년 사이 물량이 40배나 늘어난 것이다. 매출도

지난해 기준 5조2146억원으로 이 기간 2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택배 이용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4조556억원이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6년 65조6170억원, 2017년 78조2273억원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치만 보더라도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택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시장점유율 45.5%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에만 약 1만7000명이 종사하는 것을 비롯해 업계 전체적으로 5만명 정도의 택배기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15만명 가량이 택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CJ대한통운의 경우 택배기사 월 수입은 지난해 평균 551만원으로 집계됐다. 월 800만원을 받는 경우도 전체의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적게는 250~300상자, 많게는 400~500상자를 배송하고 있는데 일부 택배기사는 부부가 함께 나르는 등 가족단위로 배송업무를 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엔 월수입이 900만~950만원을 육박하기도 한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수수료 폭탄' 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금융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현황 (전업카드사 기준)) (만건, 억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이용 건수	9,207	11,179	13,175	14,062
DCC 건수(비중)	659(7.2)	919(8.2)	1,188(9.0)	1,558(11.1)
해외이용 금액	94,119	114,995	131,306	150,623
DCC 금액(비중)	12,154(12.9)	15,900(13.8)	19,877(15.1)	27,577(16.3)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 '폭탄'을 안겨줬던 원화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C)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결제금액의 3~8%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을 가정했을 때 100달러짜

리 상품을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11만원이 청구된다. 반면 DCC로 결제하면 달러당 40원의 수수료가 붙어 결제대금은 1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윤창의 금융원 부원장보는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 해외 원화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았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나며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DCC 사전 차단 서비스는 콜센터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는 2분기 중으로는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안상미 기자 smahni@

편의점에 부는 4차 산업혁명 바람

VR로 점포 레이아웃... 시로 실시간 본사와 상담

(가상현실)

(인공지능)

CU, VR기술 활용 '진열안내서' GS25, 업무 지원 '챗봇지니' 등 4차 산업기술 접목 시스템 선봬 점포 생산성·경쟁력 향상 기대



편의점 CU가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VR상품진열안내서'를 선보였다. /BGF리테일

최저임금 상승과 4차 산업기술이 유통업계에 전반적으로 접목되면서 편의점업계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업무 효율성은 높이고 일자리 부담을 낮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CU와 GS25가 최근 인공지능(AI), 가상현실기술(VR)을 접목한 점포 운영 시스템을 접목했다.

CU는 기존 책자 형식의 상품진열안내

서를 VR 기술로 구현한 최첨단 프로그램 'VR진열안내서'를 선보였다.

앞서 CU는 계절, 날씨 등 환경적 변화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의점 특성에 맞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연 2회(춘하, 추동)에 걸쳐 효율적인 진열 및 레이아웃을 안내하는 상품진열안내서를 책자 형태로 배부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VR진열안내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절적 특성, 최신 소비트렌드에 맞춰 가상 현실 점포에 구현된 진열과 레이아웃을 탭만으로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책자 형태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단순 이미지 전달에서 나아가 비디오, 사운드 등 시청각 자료와 연동되어 정보 전달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도시락 냉장고, 스낵 진열대, 음료 냉장고 등 주요 집기마다 표시된 포

인트를 클릭하면 진열 상품의 특징이나 해당 카테고리 최근 매출 순위, 중점 운영 상품 등 다양한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석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해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를 고도화된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4차산업에 발맞춰 CU만의 노하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맹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의 적용과 시스템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지난해 KT와 '미래형 점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번째 결과물로 지난 1월 편의점 점주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챗봇지니'를 공개했다.

챗봇지니는 근무자가 점포에 신규 도입되는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업무지원형 서비스다.

GS25와 KT는 점포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FAQ(자주 묻는 질문들)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나리오를 구축했다. 향후 근무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확도가 향상될 예정이다.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영주 점포 관리 측면의 생산성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저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1면 '한국은 택배공화국...'서 계속

단가 반등요인 많아 하반기 기대

3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택배가 이처럼 우리 생활속 깊숙히 자리잡은 가운데 택배단가 인상 가능성이 연초부터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형사의 경우 지난해 택배단가는 박스당 2248원 정도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치열한 경쟁으로 떨어지 기만했던 택배단가가 반등할 요인이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택배업계의 최대 숙원인 단가인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형 고객사로부터 올해 일부 요금 인상에 성공했고, 최근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 가능성과 정부의 단가 정상화 방침이 맞물린다면 하반기에 단가가 반등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더욱 격화되는 경쟁과 택배사들에게 일감을 주는 대형 유통사들의 절대적 지위로 단가 인상이 업계나 택배기사들의 요구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줄뉴스

-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는 등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 ▲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 ▲ 삼성전자가 13~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MCE 2018에서 다양한 무풍냉방·친환경 공조 솔루션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 ▲ 바이오인식 및 물리보안 분야의 글로벌 업체 지케이테크(ZKTeco)가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
-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48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5%를 기록,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 ▲ KT&G 권련형 전자담배 '릴(lil)'과 전용담배 '핏(Fii t)'이 유통망을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장한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8조... 패션 등 전용상품 강화 총력

빈폴키즈·질바이질스튜디오 등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선별 고경비 감소돼 수익성 개선



럭키슈에프가 내놓은 온라인 전용 상품 화보. /코오롱FnC

유통업계가 온라인 전용 상품을 기획하며 온라인 쇼핑족을 흡수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업이 오프라인 사업보다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최근 몇년 간 8조원대를 기록, 유통업계에서 온라인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조6991억원으로 전체 소매 판매액의 23.8%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같이 소비자들 국내에서 1/4를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트렌드가 이어지자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쇼핑 사업 영역을 늘리는 추세다.

가장 돋보이는 카테고리는 '패션'이다.

최근 몇년 간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선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구매액이 급증했지만 이들은 배송의 편리함,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했다.

반면 최근 패션 카테고리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집객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같은 브랜드 여도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유통하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제시된 새로운 트렌드이기도 하다. 업체가 같은 상품을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비싸게, 온라인몰에서는 저렴하게 내놓게 되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소비가 온라인몰에만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매트렌드가 이어지자 업계에서는 온·오프라인의 MD 구성을 다르게 기획하기 시작,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점포에 각자 다른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구매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온라인 전용' 상품이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패션부문은 지난해 9월 빈폴키즈의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만 유통을 한정했다. 또 LF는 2016년 질바이질스튜디오와 일꼬르소를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바꿨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가 감소하고 수요가 없어도 매장 구성을 위해 갖춰야 했던 제품 생산비용이 절감돼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온라인 전용 라인도 늘고 있다. 삼성물산의 빈플레이디스는 4번째 온라인 전용 상품 '라임 빈폴'을 새롭게 선보였다. 코오롱FnC의 럭키슈에프와 커스텀벨로우도 이색 온라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檢, 오늘 MB 소환... '다스 실소유주'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최대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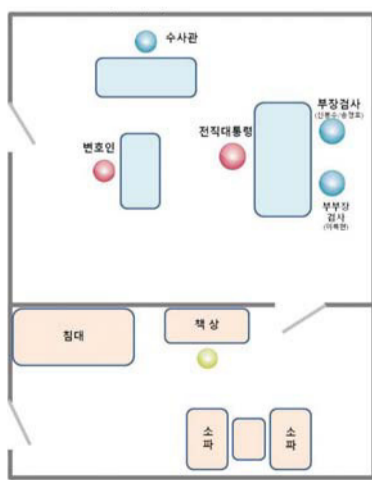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20여개 혐의로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2009년 3월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것이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는 17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MB, 중앙지검 조사실 배치도>



검찰은 지난 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주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 동안 이 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부터 불법자금 22억5000만원을 수수

한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ABC상사로부터는 2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4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로 이명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이 전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2002~2007년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이 하도급업체 지급 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3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19.91%를 제외한 나머지 80.09%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수월하게 기소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 기관 사이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있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입증된 순간,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과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적용된다.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 수수하는 등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범종 기자 joker@

‘갤럭시S9’ 사전예약만으로 평가 이르다

1 국내외 경쟁자 없네 2 갤럭시S7 교체주기 겹쳐 3 70개국 반응 뜨거워

(조기출시국)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이 사전 개통을 시작했다. 첫날 사전계약 실적이 전작의 70% 수준에 그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정식 출시가 되기도 전 평가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갤럭시S9은 오는 16일 전세계 70개국에서 동시에 출시되는 상반기 유일한 스마트폰 신제품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갤럭시S 출시 시리즈 교체주기 역시 갤럭시S9에는 호재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 지난 9일 이통통신 3사를 통해 개통된 갤럭시S9은 18만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작인 갤럭시S8이 첫날 26만대가 개통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70%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9이 전작과 달리 언팩 직후 사전예약을

바로 시작해 대기수요가 다소 적었고, 전년 대비 빨라진 출시시기 등으로 개통량이 적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갤럭시S8은 신제품 공개와 출시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늦은 4월이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3월쯤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국내외에 출시했지만 지난 2016년 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갤럭시S8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갤럭시노트는 물론 갤럭시S 시리즈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누적되면서 갤럭시S8은 첫 개통량은 물론 흥행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일부의 부정적인 전망과 상관없이 갤럭시S9의 흥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가 크다. 삼성전자는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전작인 V30의 업그레이드 제품을 내놓았고 화웨이 등은 올 하반기에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 상반기에는 경쟁제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던 갤럭시S7 교체주기가 도래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18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갤럭시S7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신제품 갤럭시S9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갤럭시S7는 2016년 3월 10일 출시된 만큼 약정 2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교체는 4월부터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9 시리즈 출시 국가도 전작보다 확대됐다. 갤럭시S8의 경우 지난해 4월 21일 초기 출시국가는 미국, 캐나다,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했지만 갤럭시9의 초기 국가는 70여개다.



삼성전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세계 최고 빌딩 부르즈 칼리파에서 갤럭시 S9 출시를 알리는 초대형 광고와 함께 체험존을 운영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 ‘갤럭시 S9+’ 제품 발표회에 참석한 중국 미디어와 파트너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인도, 중국,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 미디어 행사와 함께 체험존을 마련하며 초반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의 미디어 행사와 체험 행사를 통한 반응은 긍정적”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갤럭시S9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갤럭시S9은 전작 대비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작 대비 초기 출시국이 대폭 확대됐고, 상반기 중 눈길을 끌만한 경쟁 제품이 없어 1분기 출하량이 900만~1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금리인상 예고에 예·적금 짧게 맡기는 ‘단타족’ 늘어

은행, 파킹통장·단기상품 출시

1년 미만 정기예금 14.4%p 늘고
3년 이상 장기에금은 5.6%p 줄어

미국발(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예금 시장에서도 ‘단타족’이 늘었다. 이들은 금리가 높은 자유입출금통장이나 만기 3~6개월의 단기 상품을 이용해 짧은 기간 금리를 얻는 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파킹통장’이나 단기 예·적금 상품 출시에 나섰다.

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617조 4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30조 4933억원) 증가했다.

이 중 만기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06조 47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26조 343억원) 늘어 전체 정기예금 증가액을 견인했다. 반면 3년 이상 장기 예금 잔액은 1년 전보다 5.6%(9981억원) 줄어든 16조 81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금리가 오르는 것을 대비해 소비자들이 단기 상품에 자금을 묶어

(은행권 ‘파킹 통장’ 및 단기예·적금 상품)

은행	예금상품	연 금리(최대)
SC제일은행	SC제일 마이쥬 통장	1.50%
Sh수협은행	Sh내가만든통장	1.70%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1.20%
케이뱅크	듀얼K 입출금 통장	1.30%
웰컴저축은행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2.50%
SBI저축은행	SBI 사이다 보통예금	1.90%
OK저축은행	OK 대박통장	1.70%
신한은행	선물하는 적금	3%(6개월)
	마이 프로야구 S드림 정기예금	1.8%(100일)
국민은행	매일매일적금	2%(6개월)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1.8%(6개월)

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조만간 정책금리를 현 1.25~1.50%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단 만기가 짧은 통장에 돈을 ‘파킹(Parking)’ 해놓는 추세다.

이에 은행들은 짧은 시간 자금을 보관

하는 용도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SC제일은행의 ‘SC제일마이쥬 통장’이다. 이 상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유지되는 예치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정하고 설정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의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마이쥬 통장은 출시 4개월 만

에 수신 잔액 2조원을 돌파했다.

Sh수협은행의 ‘Sh내가만든통장’은 매일 최종 잔액이 고객이 지정한 금액 이상이면 연 최대 1.7%의 금리를 준다.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금액은 매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이 통장도 출시 2개월 만에 가입자 1만명, 잔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듀얼K 입출금 통장’도 파킹 통장 기능을 한다. 이 상품은 한 달간 잔액 유지 목표를 달성하면 최고 연 1.3%의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도 입출금통장의 ‘세이프박스’를 이용해 일정 금액을 묶어 두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2%의 금리를 준다.

저축은행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을 판매 중이다.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급여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의 ‘SBI 사이다 보통예금’은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연 최고 1.9%, OK저축은행의 ‘OK 대박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연 1.7% 금리를 제공한다.

입출금식 예금뿐만 아니라 1~6개월 만기의 단기 예·적금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의 ‘선물하는 적금’은 선물할 사람이 신규금액을 넣은 적금을 선물하면 받은 사람은 6개월간 자유롭게 추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0%다. 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하는 만기 100일의 ‘마이 프로야구 S드림 정기예금’도 판매한다.

KB국민은행은 월 30만원 이내에서 매일 자유롭게 저금하는 6개월제 단기적금 ‘매일매일적금’을 출시했다. 우대이율을 포함하면 연 최고 2.0%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만기 1개월짜리부터 있다. 3~6개월의 경우 1.5%를 제공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단기 상품에 잠깐 돈을 묶어두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이후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자금을 ‘파킹’해놓고 짧은 시간 금리를 얻어가는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4050세대 1인가구, 소득 높지만 소비는 적어

신한카드, 중장년층 소비특성 분석
여가 때 감성적 측면서 어려움 느껴

중장년층 1인 가구는 타연령보다 소득 수준은 높지만 실제 소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13일 고객의 2017년 소비 빅데이터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소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017년 월평균 300만원 소득고객의 50대 비중은 42.5%를 기록해 20대 14.3%, 30대 32.5%, 40대 38.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월평균 이용금액

규모는 30대 이용금액을 1로 보았을 때 20대 0.9, 40대 0.99, 50대 0.62로, 50대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감성적 측면 중 여가활동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혼자 생활할 때 불편한 경우’를 질문한 결과 식사와 일상활동에는 2030세대(38.5%)와 4050세대(39.9%)가 작은 차이의 비중을 보였으나 여가활동에서는 2030세대 16.2%, 4050세대 25.2%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총 소비 중 여가활동에 대한 50대의 비중이 6.1%로 타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 욕구는 높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감성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중장년층의 성별 비중은 40대와 50대 여성이 각각 41.7%, 34.8%로 나타나 동연령대의 남성(40대 44.9%, 50대 54%)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행태 중 남성의 쇼핑 및 여가는 46.4%였지만 여성의 쇼핑 및 여가 비중은 56.4%로 나타나 여성의 쇼핑 및 여가활동 욕구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무풍냉방·IoT 결합, 유럽 정조준

카카오택시, 수수료 내면 빨리 잡힌다

SAMSUNG

삼성전자

무풍냉방 기술 에어컨 풀 라인업
상업용 에어컨 전시·체험존 마련
친환경 냉매 R32 적용한 제품도

삼성전자가 유럽 에어컨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3~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모스트라 콘 베노 엑스포(MCE 2018)'에 다양한 무풍냉방·친환경 공조 솔루션 선보인다고 밝혔다.

MCE 2018은 격년으로 열리며 전세계 2000여 업체·16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공조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이 전시회에서 가정용에서 상업용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무풍냉방 기술을 탑재한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선보였다.

무풍냉방은 빠르고 강력한 바람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에 도달시킨 후 바람이 인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이크로 흡을 통해 은은한 냉기를 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적정 온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1웨이·4웨이 카세트(천장형 실내기) 등의 상업용 무풍에어컨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모델들이 무풍냉방 기술을 탑재한 '무풍에어컨'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풍냉방의 쾌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무풍 체험존'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유럽의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냉매 R32를 적용한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라인업도 선보인다.

친환경 냉매 R32는 친환경 척도로 사용되는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기존 냉매(R410A)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적은 양의 냉매로 기존 대비 높은 효율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가정·호텔·오피스 등 사용 환경별로 전시 부스를 구성해 제품 사용 환경과 용도별 맞춤 공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B2B

(기업간 거래)에 확대 적용한 빌딩 통합 관리 솔루션 'b.IoT'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 홈'을 별도 부스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찬 바람이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냉기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원형 시스템 에어컨 '360 카세트' ▲소용량으로 가정이나 소형 사업장에서 냉난방 동시 운전이 가능한 'DVM S Eco HR' 등 다양한 공조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전자 박찬호 상무는 "삼성전자는 혁신 제품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무풍냉방과 IoT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상반기 내 기능 도입... 본격 수익화
'재팬 택시' 협업 통한 일본 진출 계획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가 상반기 내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계획은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이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식이다. 즉시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준다. 지금까지와 같은 무료 호출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 방식을 선택해 배차가 성사되면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즉시배차의 경우 현행 콜비(주간 1000원·심야 2000원)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추가 요금은 택시기사에 바로 배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행 실적·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와 함께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풀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카카오택시를 불러도 택시가 안 잡히면 카풀로 연결되는 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풀 회사인 '혁신'을 인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택시 호출은 2.5배로 늘어난데 반해 활동 기사 수는 1.4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택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출퇴근, 심야 시간이나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된다. 해외 진출에도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일본의 '재팬 택시'와의 협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한일 양국의 이용자에게 국경을 초월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이용자는 한국에서 재팬택시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이용자는 일본에서 카카오 T로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외에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카카오 T에 도입할 계획이며, 원하는 일시의 교통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미래운행정보'와 답러닝 기반의 배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 누적 이용 건수는 4억 건에 달하며 전국 택시기사의 96% 이상인 24만명이 가입해 있다. 서비스 2년째에 접어든 카카오 T 드라이버는 최근 누적 이용건수 1400만건, 가입자 340만명을 돌파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4년만에 새얼굴로 돌아온 '더 뉴 카니발'

기아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선포
국내 미니밴 첫 8단 자동변속기
여러 편의사양·상품성 대폭 강화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표 미니밴 '카니발'이 4년만에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모델로 새롭게 돌아왔다.

기아차는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비트360에서 '더 뉴 카니발'의 출시행사를 갖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기존 카니발의 내·외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파워트레인을 장착했으며 다양한 안전, 편의사양을 적용해 고급감과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 뉴 카니발'의 전면부는 신규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입체감을 높이고 범퍼를 새롭게 장착해 불륨감 있는 후드와 어우러져 당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화했다. 여기에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등, 아이스 큐브 타입 4구 LED 안개등이 장착됐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과 도어트림 등에 우드 그레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다.

'더 뉴 카니발'에는 국산 미니밴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R2.2디젤 엔진의 경우 연비가 11.4 km/L(9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준), 람다II 개선 3.3 GDI 엔진은 연비가 8.2 km/L다. R2.2디젤 엔진에는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인 요소수 방식을 적용한 SCR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강화된 유



기아차 모델들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BEAT 360에서 '더 뉴(The New) 카니발'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로6 기준의 충족이 가능해졌다.

'더 뉴 카니발'에는 기존 스마트 크루즈컨트롤(SCC)을 개선해 전방차량을 감지해 차간 거리를 자동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이 신규 적용됐다.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차로 이탈시 이를 경고음 등으로 알려주는 차로이탈경고(LDW), 주행 중 사각지대 또는 후측방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 감지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후측방충돌경고(BCW), 전방 차량 혹은 보행자와 충돌 예상시 경고음을 내고 차량을 스스로 제동하는 전방 충돌방지보조(FCA), 마주 오는 차량 또는 선행차량 감지시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하는 하이빔보조(HBA) 등 다양한 안전사양이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톡 AI플랫폼 '카카오 I(아이)'의 음성인식을 활용한 서버형 음

성인식 기술도 장착됐다.

'더 뉴 카니발'의 판매가격은 ▲7인승 디젤 2.2 모델 VIP 3740만원, 프레지던트 4110만원 ▲7인승 가솔린 3.3 모델 프레지던트 3860만원 ▲9인승 디젤 2.2 모델 럭셔리 3150만원, 프레스티지 3470만원, 노블레스 382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920만원 ▲9인승 가솔린 3.3 모델 노블레스 3600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690만원 ▲11인승 디젤 2.2 모델 디럭스 2880만원, 프레스티지 3390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카니발은 지난해 국내 미니밴 시장 점유율 95%를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패밀리 미니밴"이라며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개선된 승차감 등 감성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단위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보강해 상품성을 높여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중동서 프리미엄 브랜드샵 확대

쿠웨이트 '로자나 몰'서 오픈 행사
국가별 핵심상권 중심 공략 나서

LG전자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동지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확대하며 현지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쿠웨이트의 핵심상권 중 하나인 '로자나 몰(Rozana Mall)'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샵 오픈 행사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유엔철 주쿠웨이트 대사, LG전자 중동아프리카지역대표 차국환 부사장, 걸프법안장 최용근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오픈한 프리미엄 브랜드샵은 2

개 층으로 만들어졌다. 1층과 2층을 합쳐 433㎡ 규모다. LG전자는 매장 내에 초(超)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소개하기 위한 체험존을 마련해 고객들이 올레드 TV, 세탁기, 냉장고 등 LG 시그니처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LG전자는 쿠웨이트 외에도 이집트, 이란, 레바논, 요르단, UAE, 사우디 등 중동 주요 국가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지속 늘려 나갈 계획이다.

중동 지역의 총 12개 LG 프리미엄 브랜드샵은 모두 LG 시그니처 제품을 갖추고 있으며 LG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전자는 현지시간 11일 쿠웨이트 로자나 몰에 프리미엄 브랜드샵을 열었다. /LG전자

‘금의환향’ 드래곤네스트... 中 이어 韓 유저 사로잡는다

〈모바일 액션수행게임(RPG)〉

액토즈소프트,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로 국내 신작 선배 중국서 3400억 매출·게임순위 1위... “한국서 장수게임 목표”

중견·중소게임사들의 신작이 이달에 쏟아진다. 포문은 액토즈소프트가 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지식재산권(IP) ‘드래곤네스트’를 활용한 모바일 액션수행게임(RPG)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를 오는 27일 국내에 선보인다. 13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론칭 쇼케이스를 열고 드래곤네스트M의 이 같은 출시 일정을 공개했다. 드래곤네스트M은 지난해 중국에서 출시 직후 현지 애플 앱스토어 인기 무료 게임 순위 1위, 매출 순위 2위에 오른 모바일 대작이다. 오명수 액토즈소프트 이사는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는 액토즈소프트가 1

년 반 만에 출시하는 모바일 신작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온 대작 게임이어서 매출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기 장수게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는 아이덴티티게임즈의 PC 온라인 게임 ‘드래곤네스트’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이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사전예약 700만명, 동시접속자 수 110만명을 기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중국에서 이 게임으로 지난해 상반기 약 20억위안(약 3400



오명수 액토즈소프트 이사가 ‘드래곤네스트M’ 국내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억위)의 매출을 올렸다. 액토즈소프트가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의 장점으로 내세운 것도 중국 시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다. 오명수 이사는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안정적 서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한국에서도 다시 한 번 재연할 수 있도록 선행적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카카오와 손잡고 최대 규모의 공동 퍼블리싱을 꾸렸으며 론칭 전·후까지 유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국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는 원작의 거대한 세계관과 스토리를 충실하게 승화했으며 동화풍의 그래픽과 개성 있는 캐릭터, 3D 논타깃팅 전투 등을 더했다. 특징은 캐릭터 능력치를 동일하게 보정한 후 1대1 전투를 펼치는 이용자 간 대결(PvP) 시스템인 ‘결투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일반적인 PvP와 다르게 공평한 대전 타이틀 안에 누구나 평등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팀워크가 핵심인 ‘네스트’, ‘어비스 던전’, ‘드래곤네스트’ 등 전투 콘텐츠도 추가했다. 드래곤네스트M 포 카카오는 현재 브랜드 페이지 및 카카오게임, 구글 플레이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7일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세계 1위 생체인식 보안’ 지케이테크, 韓 출사표

바이오 정보인식 기술력 본격 공략 “적극적 투자로 경쟁력 인정받을 것”

바이오인식 및 물리보안 분야의 글로벌 업체 지케이테크(ZKTeco)가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 지케이테크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범위한 바이오 정보 인식 원천 기술력과 한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밝혔다. 지케이테크 제품은 멀티 하이브리드 바이오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강력한 인증 성능과 편의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지케이테크의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시스템은 웹 기반의 통합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 시스템 통합을 위한 불편함 없이 출입통제부터 게이트, 열



13일 열린 지케이테크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이 지정맥 및 지문 멀티 바이오인식 출입통제 근태관리 단말기를 소개하고 있다. /지케이테크

리베이터, 화재 경보 등의 모든 통합물리보안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지케이테크는 단순히 바이오인식 기술과 보안 솔루션 개발을 넘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기술 플랫폼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큐리티와 스마트 오피스 등을 위한 인공지능형 시스템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존 체 지케이테크 회장은 “지케이테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인식 기술력을 갖춘 통합 보안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받은 만큼 주요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케이테크는 지난 1월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하며 씨앤비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씨앤비텍은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토필드의 자회사로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SKT “IoT 스마트 리빙 시대 연다”

엠티플러스와 스마트홈 MOU

SK텔레콤은 부동산 개발회사 엠티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엠티플러스가 분양하는 주거상품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단독 공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세대내 스마트홈과 공용부의 스마트 리빙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첫 적용단지는 오는 15일 분양에 들어가는 ‘광교 더샵레이크시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대 내에 적용된 ‘스

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주차관제, CCTV, 무인택배, 공동현관 등 주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제공한다. 또 양사는 SK텔레콤의 IoT 솔루션을 기반으로 입주민들의 실사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향후 주거공간과 인프라 설계를 최적화하고, 지속적인 사후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도 제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홈 솔루션과 관련된 홈네트워크, 주차관제, CCTV, 무인택배 등으로 사업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국



엠티플러스 구명만 대표이사(왼쪽)와 SK텔레콤 허일규 IoT/Data사업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내 40여 건설사 및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업체들과 제휴해 제공해 온 안정적 스마트홈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더욱 진일보한 IoT 서비스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키즈워치’와 함께 우리아이 리더십 교육

LG유플러스 ‘키즈런 봄 시즌’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어린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키즈워치’와 함께하는 교육·놀이 프로그램 ‘2018 키즈런 봄 시즌’을 오는 17일부터 선보인다고 13일 밝혔

다. 이 행사는 5월까지 매달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키즈런’은 아이들의 리더십과 협동정신·교우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야외 행사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봄 시즌 행사는 LG유플러스의 키즈워치가 더해져 아이가

친구들, 부모와 함께 호흡을 맞춰 해결해야 하는 교육·놀이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활동은 ▲아이와 엄마에게 설명을 통해 제시어를 이끌어내는 미션 ▲친구들과 협동해 진행되는 영어단어 스피드 퀴즈와 사진 포즈 취하기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2018 키즈런 봄 시즌’은 17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31일·4월 14일·28일·5월 12일·26일에 열린다. /김나인 기자

유창근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 글로벌 CEO들과 ‘환경규제’ 논의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사진)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규제 등 환경 관련 해운업 현안 집중 논의를 위해 박스클럽 회의에 참석했다. 13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유창근 사장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세계 컨테이너선사 모임 ‘박스클럽’에 참석했다.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는 13일 저녁 공식 만찬을 시작으로 14일 본회의 등이틀간 진행된다. 현대상선을 비롯해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 등 12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이슈 등 해운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IMO에서 2020년부터 도입하는 황산화물 규제와 저유황유 규정 이행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의 준비를 위해 6월 중 환경자문회의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양성은 기자 ysw@

박스클럽은 1992년 발족한 전 세계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협의체다. 정석명장은 세계 컨테이너 최고경영자 모임으로 통상 컨테이너를 뜻하는 ‘박스클럽’으로 불린다. 현대상선은 1994년에 가입했다. 한편 현재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 속의 황함유량을 0.5% 이하로 제한한다. IMO에서 발효한 SOx 배출규제해역(ECA)은 현재 4개이며 북해, 발틱해, 북미 및 미국 카리브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m/m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질소산화물질(NOx)에 대해서도 ECA를 지정하고 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북미 및 미국 카리브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NOx 3등급(Tier III)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발트해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양성은 기자 ysw@



2018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소기업사무원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3월 28일~ 6월 1일(월·금 9:30~13:30)
교육내용	- 전산회계실무(전산회계 1급 자격증 대비) - 전산사무실무(전산세무 2급 자격증 대비) - 직업윤리, 성격검사(MBTI)를 통한 나와 타인의 이해 - 취업서류작성 및 면접대비, 노무관리
참가대상	취업희망 여성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nambu@seoulwomanup.or.kr)
접수기간	3월 21일(수) 18시까지(면접일정 개별통보)

웹콘텐츠디자이너, SW코딩교육전문가, 아동단체급식조리원, (청년여성)특허분석전문사무인력, 노인복지행정사무원, (결혼이민여성)커리어비스타 양성과정 등 다른 과정들도 모집중

* 본 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02)802-0922 검색하세요~!

부동산규제로 여신급감... 시중銀, 자금조달 줄인다

DTI·DSR·예대출 규제 등 영향
3월 은행채 만기도래 규모 5.3조
1인당 평균 대출액 4300만원 줄어

“꼭 막혔다. 외부에서 돈을 빌릴 유인이 크지 않다.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쉽지 않고, 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그동안 앉아서 장사하던 여신이 걱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본연의 자금증대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기업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돈 장사하는 은행이 하루 아침에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시중 은행들이 외부 자금 수혈을 줄이고 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예대출 규제(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기업대출 15% 하향) 등 신규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대출)이 줄자, 영업실적이 신동치 않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역전 경계감도 존재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은행채 만기

〈일반은행 원화예대출 현황 및 조정 원화예대출 추정(한국기업평가 추정)〉

(자료: 한국기업평가·신한금융투자 인용)

(단위: 조 원, %)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원화대출금	851.3	136.3	229	194.6	191	185.1	32.5	19.1	37.6	34	28.5	18.5	13.3	4.5
기업대출	380.4	86.2	101.3	87.4	92.2	84.4	7.9	7.3	25.5	24	18.4	9	7	2.5
가계대출	457.9	46.8	126.2	104.4	96	95	24.4	11.8	10.6	9.4	9.9	9.1	5.9	1.9
기타대출	13	3.3	1.5	2.9	2.8	5.6	0.2	0	1.5	0.7	0.3	0.3	0.4	0.1
원화예수금	855.9	140.2	228	195.2	190	185.8	35	22	38.3	35.5	29.1	19	13.6	4.7
원화예대출(a)	98.1	96.3	99.1	98.4	98.8	98.4	92.7	86.2	96.3	95.1	97.5	96.8	97.5	94.0
가중치 차등화시 조정 원화예대출(b)	99.6	92.2	100.8	99.8	99.2	99.3	99.8	89.2	90.6	88.9	93.1	96.9	96.2	92.3
변동폭(%)(b-a)	1.4	(4.2)	1.7	1.4	0.4	0.9	7.1	3.0	(5.6)	(6.2)	(4.4)	0.1	(1.2)	(1.7)
예수금조달 필요액	12.4	(6.1)	4.0	2.8	0.8	1.7	2.7	0.8	(2.2)	(2.3)	(1.3)	0.0	(0.2)	(0.1)
가계대출 감축 필요액	(10.6)	5.1	(3.4)	(2.4)	(0.6)	(1.4)	(2.1)	(0.6)	1.9	1.9	1.1	0.0	0.1	0.1

도래 규모는 5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최저 수준이다.

NH투자증권 최성종 연구원은 “신 DTI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며 대출 성장률이 2017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연 초 이후 은행 내부 여유자금 증가로 발행 수요가 줄어 들었다”면서 “다만, 4월 이후 8조원 안팎의 만기 도래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차환을 위한 발행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에도 은행들은 만기도래 수준(8조8000억원)에 못미치는 4조8000억원 규모를 발행하는데 그쳤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채를 찍지 않는 이

유가 있다. 당장 대출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6만6000명을 표본으로 지난해 6·19 대책, 8·2 대책 그리고 신 DTI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추정해보니 이들의 34%가 영향을 받았다.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34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올해도 대출 수요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분기 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2로 4포인트 떨어졌다. 대출수요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분기(-3)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 전망치는 전 분기 -17에서 -27로 떨어졌다.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수요는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신 DTI 도입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 일반 자금 대출도 대출금리 상승 탓에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가 자리한다.

노용관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신 DTI·DSR 등 신규 대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55조원(추정치)에서 올해 40조원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예정된 예대출 규제의 영향도 있다.

지난 1월 22일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예대출 규제가 그 중 하나다. 은행권의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대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예대출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15% 하향해 적용키로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적용 예정 이다.

유동성 규제 강화에 따른 고유동성자산 매입 목적의 은행채 발행도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시중은행의 2018년도 일괄신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8조원, 신한은행은 7조원의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행액 8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신한은행은 12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6월까지 6조원 규모의 발행신고가 돼 있고 지난해 12월 말까지 3조7000억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SC제일은행 첫 거래 법인고객 ‘특별금리’ 제공

SC제일은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첫 거래 중소기업 법인고객을 상대로 자유입출금통장인 ‘다모아비즈통장’에 최대 연 1.3%(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SC제일은행과 처음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법인고객이 다모아비즈통장을 개설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일별 잔액을 유지하면 개설일로부터 3개월간 연 1.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오는 6월 11일 이전에 통장을 해지할 경우 특별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1000만 원 미만의 잔액에 대해서는 연 0.3%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



는 “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법인고객들의 보다 효과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 출시

“내가 응원하는 구단 승률따라 금리 우대”

신한은행은 2018 한국프로야구의 흥행과 각 구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일인 13일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이다. 구단별 상품 가입자 수, 가을야구 진출 성적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정규시즌 최종 승률이 그대로 우대금리에 반영된다.

‘신한은행 KBO리그 적금’은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이자율 연 1.5%와 출시기념 특판금리 연 0.1%포인트(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를 제공한다.

여기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승률에 따른 우대금리(2017년 기아타이거즈 정규시즌 승률 6할8리의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 0.61%포인트 우대)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3%포인트 ▲같은 구단 선택 가입 좌수에 따른 우대금리 최고 연 0.5%포인트를 얻어준다.

‘신한은행 KBO리그 정기예금’은 300



신한은행이 ‘KBO리그 예적금’을 13일 프로야구시범경기 개막일부터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판매한다. /신한은행

만원(비대면 가입 시 5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이자율 2.0%에 고객이 선택한 구단의 가을야구 진출 성적에 따라 최고 연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2.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한은행이 한국프로야구의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출시될 예정”이라며 “신한은행은 한국프로야구의 메인 타이틀 스폰서로서 앞으로도 야구와 금융을 접목

한 참신한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프로야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KBO리그 예적금’ 신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돈(1명) ▲골드바 3돈(10명) ▲프로야구 예매권(구단별 20명, 매월 200명씩 총 600명)을 제공하며 신한은행의 대표 자동차 금융상품인 ‘신한 MY CAR 대출’ 신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모바일 주유 상품권(월별 10만원 50명) ▲모바일 치킨 상품권(월별 200명 총 600명)을 제공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EB하나은행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 시행

KEB하나은행은 프라이빗 뱅커(PB) 특화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악기 컨설팅 서비스’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 시장의 특성상 가격과 품질의 편차가 심하고 워낙 제한된 정보를 통해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KEB하나은행에서 처음 시도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자녀, 손녀가 현악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KEB하나은행의 PB 거래 손님이며, 거래하는 영업점 PB(Private Banker)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컨설팅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여기에는 음대 교수, 유명 시립교향악단 악



서울 삼성동 KEB하나은행 Club1 PB센터에서 컨설팅 자문위원단의 복원 제작 전문가가 한 PB 손님이 의뢰한 현악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장 및 수석급 연주자, 악기 전문 딜러, 악기 복원 및 제작 전문가 등 현악기 각 종류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김문호 기자

KB국민은행 ‘포모사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12월 3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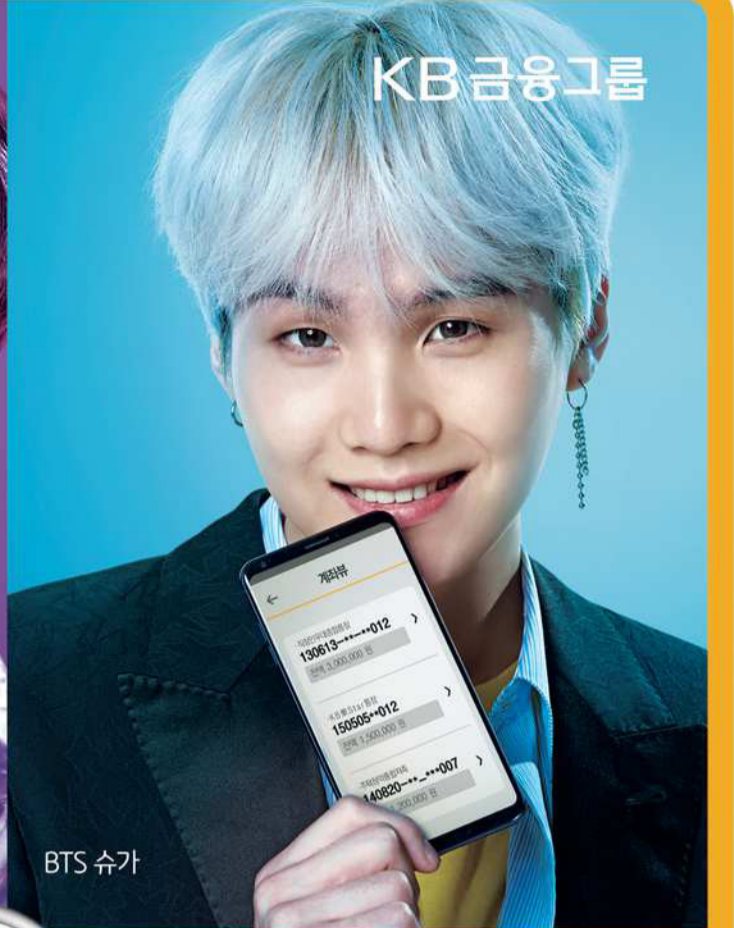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KB국민은행은 우수한 영업실적과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만 및 해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가산금리는 최초 제시 금리의 하단인 78bp

(1bp=0.01%)로 확정됐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발행한 5년 만기 포모사본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발행에는 소시에티제네랄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대만 67%, 대만 역외가 33%였다.

/안상미 기자



KB X BTS

대한민국대세 모바일뱅킹

KB스타뱅킹

일상을 바꿔놓을 새로운

<p>인증 없이 5초 만에 보내는 KB 빠른이체</p>	<p>로그인 없이 계좌 확인 KB 계좌뷰</p>
<p>자산관리를 게임처럼 즐겁게 KB Play Asset</p>	<p>우대환전에 외화 배송까지 KB 외화환전</p>



※ KB스타뱅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거나 스마트상담부(☎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물에 대한 유효기간 2019.03.19 까지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3-2호(2018.03.02)

KB 국민은행

증권 다이제스트



SK증권

ELS 1종·ELB 1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16일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 및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00회 ELS'는 흥국(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저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 (24·30개월), 80% (36개월) 이상이면 연 6.7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이 최저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7%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범기 기자



대신증권

3개월간 '굿즈모닝 이벤트'

대신증권은 크레온 계좌를 개설하고 첫 거래한 고객에게 직접 제작한 가방과 명함지갑, 1만원권 펀드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굿즈모닝 이벤트'를 3개월간 진행한다. 대신증권 크레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로, 유명 패션 업체와 협업해 직접 만든 한정판 굿즈(Goods)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첫 계좌개설 이벤트는 크레온 MTS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토트백을 선착순 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 5년 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해외주식·ETF 투자 대전망

키움증권은 '해외주식·ETF 투자 대전망'을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 빌딩 2층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첫 강의를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주식팀장이 진행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 신항공사 시장 투자와 글로벌 태양광 업종 분석 위주로 진행한다. 특히 대표 대체 에너지 업종인 태양광 업종 개별종목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으로 개별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에게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보인다.

/손범기 기자

외국주식보다 안전하고 해외펀드보다 편리하네

자산운용사, 해외지수 ETF 선점 경쟁

(상장지수펀드)

73개 해외 ETF 수익률 3.93%

매매 편리성·투자 다양성 확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지수 ETF 시장은 포화상태인데다 EMP(자산의 50% 이상을 ETF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상품 출시를 위해선 다양한 ETF 상품 라인업이 필요해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9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 총 1971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순유입 규모는 2035억원, 1개월 순유입액은 732억원으로 자금 유입이 꾸준하다.

수익률도 주목할 만 하다. 국내에 상장된 총 73개 해외주식 ETF의 연 초 이후 수익률은 3.93%로 국내주식 ETF가 해당기간 1.37%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상장한 미국 4차산업 지수, 베트남 지수 ETF는 각각 16.13%, 13.48% 수익률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외주식 ETF는 투자자들의 수요와 수익률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해외주식 펀드와 달리 일주일여의 펀드 환매

<연초 이후 수익률 상위 해외 ETF>

펀드명	운용사	수익률
한국투자KINDEX미국4차산업인터넷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H)	한국	16.13
한국투자KINDEX베트남VN3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한국	13.48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11.53
한국투자KINDEX러시아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한국	11.51
삼성KODEX합성-미국 바이오테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삼성	10.31
한화ARIRANG미국나스닥기술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한화	10.20
한화ARIRANG합성-HSC티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한화	9.50
삼성KODEX China H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삼성	9.13
한국투자KINDEX중국본토레버리지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	한국	8.52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합성)	미래에셋	8.15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 대상(운용/모펀드 제외), 3월 9일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기간 없이 주식처럼 즉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편리성과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매력적이다.

윤주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해외 ETF를 적극 개발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고,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해외주식 ETF 라인업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자산운용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실제 연초 이후 높은 성과를 기록한 해외 ETF 상위 5개 중 3개 상품이 한투운용의 ETF다. 지난 9일에는 업계 최초로 모건스탠리카피털인터내셔널(M

SCI) 멕시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해외 증시에 기초한 ETF 상품을 내놓는 운용사는 한투운용이 유일하다.

상반기 내에도 다양한 해외 ETF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한투운용 ETF 팀장은 "베트남은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곳여서 성장 가능성을 봤고, 러시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이번 멕시코 지수 ETF 역시 폐쇄화가 신흥국 통화 중 저평가됐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ETF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달 미국 ETF

F 전문 자산운용사 '글로벌X'를 인수하면서 세계 10위권대의 ETF 순자산 규모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상반기 내 나스닥 상장 종목 중심 ETF를 뉴욕 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ETF 상품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적극적으로 ETF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EMP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ETF 상품 라인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양한 섹터와 지역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 팀장은 "최근 연금 등이 EMP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있어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커졌다"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더 공격적으로 ETF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ETF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화하는 측면과 국내 지수보다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다. 하지만 해외 투자인 만큼 세금 문제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본부장은 "해외 ETF 중에서도 국내 상장된 국내 ETF인지,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인지에 따라 환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 ETF, 아니라면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세제 부문을 잘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분양시장 최대어 '디에이치 자이개포' 16일 견본주택 개관

3.3㎡당 평균 분양가 4160만원 '부자들만의 로또 아파트' 비판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오는 16일 오픈한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중풍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지난 1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디에이치 자이개포 분양이 본격화한 셈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1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은 전용면적 ▲63㎡ 188가구 ▲76㎡ 238가구, ▲84㎡ 772가구, ▲103㎡ 240가구, ▲118㎡ 204가구, ▲132㎡



'디에이치 자이개포' 투시도.

/현대건설

42가구, ▲173㎡ 5가구, ▲176㎡ 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 4층, 지상 35층, 15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 85㎡ 이하 중소형(1198가구)이 전체의 70%를 넘는다. 전용 173㎡와 176㎡는 펜트하우스다. 당초 '디에이치 자이개포'는 높은

시세차익으로 과도한 청약경쟁이 예상되면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돌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160만원으로 전용 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12억 원대 후반에서 14억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4억원 차이가 난다. 당첨만 되면 4억원 안팎의 시

세차익이 기대되는 이유다.

강남구 일원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당첨만 되면 약 7억~8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디에이치 자이개포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돼 계약금(10%)과 중도금(60%)을 내려면 9억원 이상의 현금 필요하다. '여유있는 사람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9억원은 큰 부담이다.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들만의 로또 아파트'라는 비판도 나온다.

건국대학교부동산학과 심교인 교수는 "청약 경쟁률 1000대 1을 예상하고 있다. 청약 과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세차익을 줄여야 한다. 분양가가 낮다고 해도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조망권' 따라 집값 달라지는 오피스텔

가능 여부에 시세·매매가 달라져

오피스텔 분양시장에서 조망권 경쟁이 치열하다. 공원이나 호수, 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강조하는 오피스텔이 늘고 있는 것.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서도 조망권 여부가 관심이 많다. 조망권을 갖춘 오피스텔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이다.

지난해 10월에 분양한 '광고 SK VIE레이크' 오피스텔은 최고 청약경쟁률 56대 1, 평균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다. 이 오피스텔은 광고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청약경쟁률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11월 우미건설이 동탄2신도에 공급한 '동탄 린스트라우즈 더레이크' 오피스텔은 186실 모집에 6만 2383건이 접수돼 평균 335.39대 1, 최고 401.66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오피스텔은 동탄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망권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KB부동산리자리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강 조망권 오피스텔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자리한 '대우 트럼프월드3차' 전용 39㎡의 경우 평균매매가는 3억 3000만원을 기록했다. 신원산역 인근에 위치한 '대우아이빌8차' 오피스텔은 2억 3000만 원으로 1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월세 역시 '대우 트럼프월드3차'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10

만원에서 125만원 선이지만 '대우아이빌8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75만~80만원 선으로 3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에 따라 매매가가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한화오벨리스크'(2004년 입주)는 지난 3분기 18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31㎡ 타입이 2억 6000만원에 매매됐다. 반면 같은 기간 7층은 2억 4000만 원에 거래됐다.

/정연우 기자

헌법특위, 5대 원칙 반영 '개헌안 초안' 공개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 의원 소환제도

문대통령, 늦어도 21일까지 발의 단일안 마련 못한 쟁점 복수안 보고 정부형태 '대통령 4년연임제' 채택

관심이 모아졌던 정부 개헌안 초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 등 '5대 원칙'을 반영한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인 '6·13 지방선거 개헌'을 지키기 위해 늦어도 이번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헌법전문 조항에 5·18 민주화운동 포함, 수도조항 명문화, 지방 자치·분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 개헌안이 현실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쟁점은 1·2·3안 복수의 안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개헌안 초안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이들 민주화운동들은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 헌법전문에 포함시켰다는 게 자문특위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문특위는 현행 헌법 조문의 '국민' 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경우 '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을 포함한 '국민'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을 유지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헌 관련 '뜨거운 감자'인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헌안 초안에 담겼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발의될 정부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우선돼야 하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문특위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이번 개헌안 초안에 담겼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 확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 대법관 제정권·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등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자문특위는



결선투표제 규정을 포함시켰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해 선

거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자문특위의 설명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이념도 개정안 초안에 반영됐다.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으며,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입법부인 국회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선거운동비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절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등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개정안 초안에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따라 발목 잡혀 있던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양질의 생산품·서비스 받을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과 사회적 위험 대비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일·생활 균형 실천을 위한 국가 노력 의무 등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與 “국회 논의 서둘러야” 野 “靑이 나설일 아냐”

야당, 개헌발의에 강력 반발

‘국회 의결 불가’ 전망 우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으며 개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회 개헌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 의결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을 핑계로 개헌 논의의 진척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나서게 된 이유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주도 개헌 성사 여부가 달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린 한 주민만큼 야당과 협상에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안을 야당을 향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국회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 개헌안은 철회가 가능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는 귀를 열면서 국회의 논의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집착은 좌파 독주, 사회주의 개헌을 위한 일방통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백 년 미래를 내다보고 기틀을 세우는 것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지 문재인 독주, 졸속 개헌, 사회주의 급속열차를 타는 개헌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中·日, 북 비핵화 등 韓 평화정착 지지

정의용-中·서훈-日 파견 효과

아베 “한미일 협력문제 해결 전력” 시진핑 “중한관계 발전하길 바라”

한반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 중국의 두 지도자가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표했다. 한국과 북한의 대화, 북한과 미국의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에 대해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전격 파견해 다독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13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이 협력해 서북한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정의용 실장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만난 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상호 관계 개선과 화해 및 협력 추진 그리고 북미 대화,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대화 기회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포함된 국제사회는 중국이 제기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에 각국의 유익한 제의를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정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마찬가지로 중한 관계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연초 전화통화로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좋은 소통을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친환경차 환상 버려야... 경제성 따지면 역시 '내연기관'

(디젤·기술리)

자동차공학회 로드맵 발표회

“내연기관차 대체 어려울 것”

기술-부품 제휴·공동개발 강조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미래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가 가솔린과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는 1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급변하는 환경: 자동차 기술의 현황과 전망·자동차 동력,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파워트레인 종류별 적합성 비교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종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자동차 시장은 파워트레인 기술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친환경성 ▲에너지안보 ▲기술성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배 교수는 “미래 친환경차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과거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전망했던 조사



13일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위원회 이종화 위원장(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아주대학교 교수), 배종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정표 한양대학교 교수,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 허건수 한양대학교 교수(오른쪽부터)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4년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오토모티브 월드 카 인더스트리 포캐스트가 발표한 2015년 자동차 시장 수요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자동차 총 판매량의 경우 예측치 대비 약 17% 증가했으며 내연기관차는 45% 증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예측치에 크게 못미치는 9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배 교수는 “내연기관은 상대적 저비용 고효율화의 다양한 기술개선에 힘입어 2030년에도 자동차에 탑재율 80% 이상의 주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과 기술력 관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로 주춤했던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높인 디젤 엔진으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최근 2018 제네바모터쇼에서 “디젤 포기 없고 이동 서비스로 변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주목받은 친환경차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도 꼬집었다.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차는 코발트·리튬 등 광물자

원에 의존하는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각국이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디젤 자동차 퇴출 등 규제를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체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효율화와 초저배기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다. 국내외 친환경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약 236만대에 달했던 시장 규모는 올해 301만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친환경차 시장 역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 2015년 4만1978대에서 2016년 6만8826대로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준으로는 8만8713대가 집계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영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자동차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격변기에 직면한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분야의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트롤 타워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부품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간의 기술 제휴 및 공동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소전기자동차 로드맵’에 대해 발표한 김민수 서울대 교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은 규제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내연기관을 비롯해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외국인, 지난달 국내주식 4兆 순매도

지난달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4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인 상장주식 3조9610억원 순매도, 상장채권 2조6410억원을 순투자해 총 1조3200억원이 순유출됐다. 주식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됐지만 채권은 순유입이 지속됐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2조5000억원, 코스닥 1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액은 621조1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각각 2조2000억원, 1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2조1000억원), 미국(-1조8000억원), 케이만아일랜드(-4000억원) 등이 매도에 나섰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6조2000억원으

로 외국인 전체의 41.2%를 차지했으며, 유럽(28.0%)과 아시아(12.3%), 중동(4.2%)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상장채권 4조485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6410억원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2월 말 기준 총 103조4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1000억원), 아시아(1조1000억원), 미주(3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가 44조4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9%를 차지했고, 유럽(31.1%)과 미주(12.1%)가 그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와 통안채에 주로 투자했고, 잔존기간 1~5년 미만의 순투자 규모가 컸다. /양성미 기자 smahn1@

“日 취업하려면 대학교 3학년부터 준비해야”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한일 채용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해 대학교 3학년에서부터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인재상과 일본어 능력 등의 준비 역시 요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취업 이렇게 준비하자’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인재상과 기업문화 차이, 채용 정보 등과 함께 일본 취업 성공자의 노하우 등이 공유됐다.

유현주 퍼솔코리아(일본인재비즈니스 업계 대표기업 퍼솔그룹 자회사) 해외취업부 대표는 “일본은 협동성, 소통 능력, 성장배경 등 인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즉시 전력보다는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

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 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며 “인문계·이공계 모두 비즈니스 레벨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취업 성공 노하우를 발표한 박재섭 씨(일본 오리츠(ORIX)그룹 입사예정자)는 “일본 특유의 채용절차와 문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실업난과 일본의 구인난 속에서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은 모두 윈윈”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고다이로 나오와 이상화 선수가 상호 존중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준 것처럼, 한일 관계도 청년인재 교류를 통해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코스피지수 2490선 회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로 249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7포인트(0.42%) 오른 2494.49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착수

의혹 확인 ‘특별검사단’ 별도 편성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이 13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채용청탁 의혹을 받은 최홍식 금감원장이 사임을 표한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특별감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기간만도 3주로 잡았으며, 일단 의혹이 있는 2013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단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장은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로 감사반은 감사총괄감사반, 내부통제반, IT반 등 총 3개로 구성됐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잡았지만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감사대상 기간도 최 원장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2013년을 먼저 들여다보겠지만 역시 필요할 경우 확대해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후에는 최종 결과만을 감사에게 보고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아울러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전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은 당시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그의 이름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당시 본인의 행위가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고 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성미 기자

금융위,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1481억 회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48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생명 지분매각(블록세일)을 통한

회수액이 15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우리은행 지분매각(콜옵션 행사) 83억원 등을 회수해 211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BNK금융지주(경남은행 매수

인)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63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 규모는 총 115조6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5%를 기록,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금강산오션리조트

서울출발 동서고속도로 개통
2시간 으로 가까워졌습니다.

595만원
10년후반환/여름휴가 예약중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이 숨쉬는곳
통일전망대 화진포 송지호와 금강산비경을 간직한곳
하루를 머물러도 안락함을 느낄수 있는 리조트로 초대합니다.

*분양 하계 휴양소, 연수문의
02)541-0113
24시간 상담 (공휴일 상담 가능)

대우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아시아 경제 신문 리조트 부문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동해안 고성에 위치한 금강산 오션리조트는 국내 바닷가 리조트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해 비치리조트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변에서 해수욕과 바다낚시, 등산 등 각종 레포츠를 즐길수 있고 힐링 휴가를 즐길수 있는 동해안 휴양지로 거품을 뺀 가격에 분양중이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를 795만원, 로얄스위트형 165㎡ 1,395 만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 타업체와 비교해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품을 완전히 제거 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착순 마감한다. 더구나 선착순 30

명에게는 무료숙박권 10매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증정 한다니 관심 가질만 하다.
또한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가능 하고 펠리핀 세부 중국 청도 일본 니가타 말레이시아에 골프와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오션리조트는 100%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제로만 분양을한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직영 리조트인 동해 리조트와 제주 리조트 외에도 도고 나주 지리산 경주 설악 덕구 등 전국 8개 지역에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 정회원이 되면 가입과 즉시 가족 카드 5매가 발급 되어 가족 친지들이 함께 연간 30일을 정회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인 가입시에는 무기명 카드가 제공되어 사원 후생 복지로

사용가능 하다. 위치가 동해안 고성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름 휴가시에 인기가 좋아 창을 열고 나서는 바닷가 백사장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분양 가격의 반값으로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별장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입금 선착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우선 배정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문의: 02)541-0113 신청금 50만원
기업은행 244-025348-04-029 (주) 미봉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과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등기제로 분양합니다.



제주리조트



Poshill
Trebium

양평 '타운하우스'

“남한강과 용문산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
양평 최고의 조망권을
자랑하는 사업지!”

※ 양평역 10분

-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2023년 개통예정
▶ 송파15분
-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2020년 개통예정
▶ 수도권 빠른이동
- 서울 동부권 잠실/송파/하남과 성남/분당/죽전에서
차량으로 40분대에 사업지 도착 가능



※ 현장에 모델하우스가 전시중입니다.

포스코 자회사 포스홈시공 문의 : 070-5133-6570

강촌 스카이하일 2억 7천만!
대지 396㎡ + 건축 99㎡ (모델하우스 특가 분양)



강촌역 10분 강촌IC 5분 송파 40분

송파에서 40분, 강촌역에서 10분 거리 되는 강촌스카이하일 타운하우스 주변은 북한강의 수려한 모습과 그 주위에 자연 휴양림들로 인해 그 가치가 더해진다. 도시에서 누릴 수 없었던 깨끗한 공기와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치가 바로 강촌이다. 인프라는 물론이고, 남이섬, 강촌엘리시안, 대명비발디 등 여러 관광지까지 가까운 분양 조건 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도 안성맞춤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온가족의 아름다운 생활을 빛낼 수 있다."며 말하기도 했다.
단지 내 넓은 진입로와 도시가스, 상수도 설치로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며 친환경 목조주택, 풍부한 자연환경으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주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자연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강촌스카이하일 타운하우스 현장 방문하면 샘플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고 상담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6959-2192에 연락하면 된다.

분양문의 : 02-543-1177

무역전쟁 희생양은 결국 中企... 품목·지역 다변화가 답

비욘드 스톱

6 트럼프만 바라보는 中企

공정거래협약 맺은 중기 3만 여 곳 대기업 그늘에 수출 입지 좁아져 사드 이어 무역전쟁 등에 발동동

#. 대기업 납품업체인 D사. 이 업체의 영업 담당 부사장 A씨는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밉다. 한국산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셀(Cell-전지) 등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는 위협 때문이다. 이 회사 매출의 60% 이상이 대기업에서 나온다. 그는 “대기업만 바라보는 ‘천수갑 경영’을 하다보니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수출물량이 줄면 치명적이다. 다른 해외기업과 거래를 뚫기도 쉽지 않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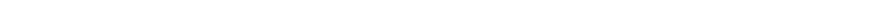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보호무역의 희생이 된다면 협력사인 중소기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각각 220개, 2만9000여개에 달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은 철강뿐만 아니라 제약, TV, 자동차 등 다른 주요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가입실적	27,043	18,292	11,468	17,202	15,096	12,262
대기업	1,829	1,153	337	228	-	-
중소기업	25,214	17,140	11,131	15,081	-	-

주: 2014년도부터는 대·중소기업 가입 실적이 구분돼 제공되지 않음.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국 기업의 세탁기 제품만 타깃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달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부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제약업은 다음번 무역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분야다.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자본안식 中企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운 보호무역 앞에서 중소기업은 울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경험 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가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사드 배치 발표 전 조

사 결과(5.3%)보다 20.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중소기업의 걱정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가 있다.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다. 또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특정 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대기업 그늘에 있다보니 글로벌 무역전쟁의 부담도 크다.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1차 협력사는 600여 곳에 달한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는 400여개, 2·3차 협력사는 5000여개에 달한다.

철강, 전자와 달리 중소기업이 주축인 섬유·제지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산업용 섬유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무역규제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미국 산업용 섬유 수입액은 2011

년 104억 달러에서 2016년 125억달러(연평균 +3.7%)로 증가했다. 다행히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생활용 섬유제품과는 연관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전쟁의 또다른 사생아로 꼽히는 환율도 중소기업에 부담이다. 대부분 중기들이 지난 2008년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 이후 환헤지 상품이나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환율 급락에 무방비 상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앞친데 뒤편 격으로 다른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내놓은 ‘2016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수출기업(9만3000개) 가운데 대기업(800개·0.8%)의 수출액이 3171억달러로 총수출액(4943억달러)의 64.2%를 차지했다. 중견기업(1700개) 수출액은 851억달러(17.2%), 중소기업(9만600개)은 921억달러(18.6%)다. 중소·중견 수출비중이 35.8%인 셈이다. 특히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33.9%, 상위 100대 기업이 64.8%를 차지해 상위 기업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소통강화,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수 있을까.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 대응 방

안’을 통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정보수집 및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 체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에도 대비해 자금이나 법률 등의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은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선 다변화도 강조된다.

세종대 경영대학 김대중 교수는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의 교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교역을 확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약 32%로 매우 높다.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내외이다. 따라서 과도한 중국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 그대안은 베트남, 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NH농협그룹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자산운용 수익률 UP

그룹 차원에서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도입했던 NH농협금융지주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CIO 체제 도입 전과 비교해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이 23bp(1bp=0.01%)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그룹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15년도에 금융그룹 최초로 CIO체제를 도입했다. 농협금융 계열사를 포함해 지주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자산 활용을 위해 지주내 자산운용전략부를 두고, 그룹차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과 전략적 투자방안을 제시하는 등 수익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자산운용부문의 컨트롤타워로서 농협금융의 투자원칙과 절차 등 모범기준을 마련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그룹 시장전망·분석 역량을 집결한 연간 자산배분 전략(SAA)을 제시해 사회가 이에 기반한 투자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 1월 자산운용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올해 중점추진사항으로 자산배분 전략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사회 자산운용부분 평가방안에 자산배분 효과를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장기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SAA 이행을 사회에 당부했다. 또 금융연구부와 NH투자증권 및 NH-아분디자산운용의 리서치정보를 자산운용 딜러들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운용역량 및 시장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안심미 기자 smahn1@

수도권 2기신도시 올 1만2000가구 분양... 물량 줄어 희소성 ↑

양주·동탄2·김포 등서 공급

2015년 이후 물량 감소세 공급 줄어 청약 경쟁 예고

올해 수도권 2기 신도시에서 1만 2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 들어 내집 마련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2기신도시(양주·동탄2·운정·김포한강·위례·검단·판교·평택고덕)에서는 1만2236가구가 분양된다. 1~2월 분양을 마친 1142가구를 포함하면 1만3378가구가 된다.

지역별로는 ▲양주신도시 4131가구 ▲위례신도시 3016가구 ▲김포한강신도시 1933가구 ▲검단신도시 1281가구 ▲동탄2신도시 1029가구 ▲운정신도시 846가구 등이다.

수도권 신도시 내 분양물량은 2015년 3만5232가구 이후 2016년 1만6911가구로 감소세다.

신규 공급이 꾸준히 줄어드는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더 이상 신도시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물량 예정〉

사업명	위치	총 가구수(실)	전용 면적(㎡)	분양 시기	건설사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	경기 양주신도시	2038	66~84	4월	대림산업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 파크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1732	84	3월	(주)동일 (주)동일스위트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경기 위례신도시	1078	85초과	7월	현대엔지니어링
동탄역 예미지 3차	경기 동탄2신도시	489(아)* 420(오)	84~101	4월	금성백주주택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인천 검단신도시	1186	미정	상반기	호반건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아파트·(오)→오피스텔. /자료=부동산114

개발 자체를 못해 신도시 내 공급 물량이 꾸준히 소진됐기 때문이다.

신도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낮고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으로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집값 상승률이 높아 청약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신규 택지지구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2기 신도시의 마지막 물량에 수요가 몰릴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2기신도시 공급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어 청약 경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 2기신도시의 주요단지로는 대림산업이 오는 4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66~84㎡, 2038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도보 약 10분 거리로, 양주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위례신도시 A

3-4a블록에서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85㎡ 초과 1078가구를 공급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북위례는 지하철 5호선 겨여역과 마천역 등이 가깝다. 현재 기반 시설이 조성 중이다.

금성백주주택은 오는 4월 경기 동탄 2신도시 C7블록에 ‘동탄역 예미지 3차’ 84~101㎡, 아파트 489가구와 오피스텔 420실 등 909가구를 공급한다. 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GTX 노선도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호반건설은 상반기에 인천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186가구를 내놓는다. 이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어 향후 교통이 공황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을 통해 서울로 접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동일과 동일스위트는 지난 9월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06, Ac-07블록에서 선보이는 ‘김포한강신도시 동일스위트 더파크’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1단지(Ac-06블록), 2단지(Ac-07b블록) 등 84㎡ 1732가구가. /이규성 기자 peace@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전문가-스타트업 잇는 ‘디톡스’ 세미나 개최

내달 3~4일 경영인 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캡프는 오는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을 초청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디톡스(D.TALKS)는 다양한 분야에

서 혁신적인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전문가를 초청,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이번 디톡스는 4월 3~4일 양일간 디캡프 선릉에서 ‘스타트업 경영의 定道 : 사랑, 그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주제로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인 2인이 참여한다.

참여 전문가로 ▲체성분 분석기 자동혈액계 등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 가전제품과 관련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주)인바디의 차기철 대표와 ▲건설분야 공학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현재 110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주)마이데이터아이티 이형우 대표가 함께 한다.

두 전문가는 스타트업 경영인들에게 독창적인 경영철학과 조직관리 노하우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던 성과 기반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디톡스 프로그램은 디캡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군산·통영지역 GM·성동조선 협력사에 1300억 특별보증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금융지원대책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 금융지원 유관기관회의 기존 보증·대출 만기 연장키로

정부가 한국GM, 성동조선 등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금융 지원대책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관련 지역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기존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과 작년 군산지역 지원 당시 기존 자금지원 연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주내 대출 만기 연장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산·통영지역 한국지엠(GM), 경남지역 성동조선해양 협력업체 등의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 13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다. 자금은 금융위가 1000억원을 부담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300억원을 부담한다.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적시에 신규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보증조건 등 조만간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이 활용하던 기존 자금 만기를 연장조치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참여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새마을금고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융지원과제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협력업체 등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교장 자격증 없어도 '교장 임용' 길 넓힌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교육경력 15년 교원 임용 확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형공립고와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도

록 지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청 학교 15% 이내 제한에 따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작년 3월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56개교(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15%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 신청 학교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지만, 교육계 일부 의견을 수렴해 50%까지로 절충안을 낸 셈이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 학교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등 교육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의 본래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교총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전문성이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유를 확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전교조는 "교육부가 100%에서 50%로 확대 폭을 줄인 것은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홍수 기자 hys@

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투자예산 확대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R&D) 투자 예산 비중을 현행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 과정에서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이 출연금에 매칭해 부담하던 현금비율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주)고영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산업기술 R&D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요소기술 확보 중심으로 치우쳐 민간 R&D 영역과 일부 중첩된 측면이 있고 사업화보다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중점을 뒀 '선 연구개발 지원, 후 제도개선' 관행이 지속돼 신산업 창출 가속화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혁신방안은 예산투입의 전

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 산업기술 산출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우선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5년 후인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세부적인 전략제품 및 서비스 발굴 후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전체 산업기술 R&D를 포괄하는 종합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혁신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도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점 산업분야별 빅데이터를 축적·공유·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R&D 지식플랫폼을 구축해 R&D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

간 정보교류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 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 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인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0%로 완화하고 완화된 현금비율은 현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융합 및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해 신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리야드 경제기획부에서 알 투와즈리(Mohamed Al-Tuwairji)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사우디서 韓원전 세일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막서 성공적 UAE 원전 건설 추진"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사우디를 찾아 원전수출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산업부는 백 장관은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를 방문해 알팔레 에너지 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원전수출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비전2030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백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올 3~4월로 예정된 사우디의 원전사업 예비사업자 선정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수주를 총력 지원하면서, 사우디가 야심차

게 추진하는 '비전2030 협력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백 장관은 알팔레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간의 풍부한 원전 건설 및 운영경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 국제적으로 입증된 기술적 안전성 등을 토대로 사막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UAE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사우디 비전2030 협력사업과 관련해 한국이 사우디 경제개혁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장관은 올해 중 제2차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성과사업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이달 14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시험실시기관 지정,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부여, 교육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품(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유통품질관리기준 운영 등이다.

주요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목 허가 시 제출되는 안전성·유효성 시험 성적의 신뢰성 확보와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동물임상시험 또는 비임상 시험 실시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등을 마련했다.

또 동물용 의약품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 및 도매업자 관리 등에 대해 연 8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했다.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단계 품질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유통품질관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협조해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국가균형발전’ 개정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촉진법 개정

10조 균형발전 예산·혁신클러스터 지정권 등 위상 강화

기업·일자리 대부분 수도권 몰려 지역발전정책 예산편성 등도 맡아 7월까지 시행령 개정 완료 계획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풀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이름이 변경됐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은 9년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고 그 위상과 역할도 강화된다. 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보조금, 세제 등 여러 지원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산업부와 지역위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1000대 기업 본사와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의 약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기능에서 예산 편성, 정

책 의결 등까지 맡게 된다.

중앙부처는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 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산업단지·대학 등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지원, 규제 특례, 혁신 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도 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가동안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산업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도별로 설치돼 시·도의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를 평가하는 내

용이다.

송재호 지역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수립지침 마련과 중핵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 제반 준비작업도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3일 오전 광주 동구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광주 동부소방서 무등산119 시민산악봉사대, 재향소방동우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원 등이 불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돕는다

광주시, 악취방지시설 등 교체 지원

광주시는 13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설치 및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관내 노후 및 민원

이 다량 발생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악취(VOCs) 방지시설,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를 하고 자 할 경우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및 조건은 방지시설 설치비용 8천만 원 이하 시설개선 비용의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비율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

서식에 따라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향후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광주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

진도군 52억 투입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작

진도군이 올해 52여억의 예산을 들여 1807명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5개 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읍면과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진도문화원, 진도노인복지관, 서경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별로 발대식을 갖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보다 18억3000만 원이 증가된 총 5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도읍내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와 주정차계도사업, 게이트볼·파크골프 강사파견, 문화재·유적지·공원·체육시설 주변관리사업

등의 공익활동사업을 실시한다.

취약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 말벗과 안부확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노-노(老-老)케어 사업 등 25개 사업에 총 180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연중 운영하며, 공익활동형 사업은 11월까지 9개월간 추진된다. 근무시간은 월 30시간, 1일 3시간 이내로 월 27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인 소득 보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 특성을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더 많은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제1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 박람회 구례군 ‘행안부장관상’

구례군은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공동주

최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243개 기관이 790개 부스를 열고 지역 현장의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소개했다.

군은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사업가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정책 모델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 구례=김남중 기자

광주지역 극단들,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1인연극’ 선포

예산난에 시달리는 광주지역 극단이 실험적인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제목은 ‘오천원 짜리 연극 -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이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다.

극단 ‘얼·아리’는 오는 5월 14일 1차 공연을 목표로 참여 관객 모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극은 1인 극으로 사전 대본 없이 참여 관객 10명과 대화하며 대사를 완성해 가는 실험적 연극이다.

2014년 전국연극제 등 전국대회에서 2차례 대상을 받은 이 극단은 공모 탈락으로 올해 광주문화재단의 재정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이번 연극을 1인 극(모노드라마)으로 꾸민다. 그는 참여 관객 10명과 함께하는 연극을 구상했다.

관객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관객 입에

맞는 대사를 공연 중에 완성하는 방식이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 중 1명을 뽑아 연기상을 줄 계획이다. 상금은 5000원이다.

양 대표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참여 관객 10명을 모집한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등 광주 관련 커뮤니티와 각종 언론, 사회적 관계망(SNS)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광주 북구가 야구장 인근에 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매년 KIA 타이거즈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경기장 주변 대로를 중심으로 관중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돼 인근 아파트 진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 홈 경기가 72경기나 예정돼 있고, 지난해 우승으로 야구에 대한 지역민들이 관심이 높아져 관람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구는 오는 24일~25일 열리는 홈 2연전을 시작으로 프로야구 정규 시즌 동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경기 시작 전 1시간부터 경기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이동단속반 차량의 경우

1차 촬영 후 10분 후 2차 단속을 하고, 도보 단속은 예고문 부착 10분 경과 후 사진촬영 단속한다.

북구는 특히 이중·대각주차 및 천변우로 이·삼중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북부경찰서, 인근아파트자치회 등과 함께 의결·안내요원을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배치해 지속적인 교통지도에 나선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야구장 주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홍종학식 오픈 이노베이션... “中企 돕는 대기업 지원”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취임 100일

기술탈취 없는 올바른 문화 선도
골목상권 침탈뎀 강력하게 대응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대기업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작은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노하우에 정부의 정책을 접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홍종학식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다. 대신, 대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탈취를 하거나 골목상권을 침탈할 경우엔 강력하게 단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장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하면 커나갈 수 있는지는 대기업들이 더욱 잘 알고 있다. 대기

업의 성장 경험과 정부의 정책수단이 결합해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개방형 혁신을 위해 대기업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과 출입기자들의 이날 소통 자리는 지난달 28일로 초대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을 겸해 마련됐다. 특히 홍 장관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 장관은 “창조센터는 (설립 등에) 대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하지 못해 추진하다보니 오해가 있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대기업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이 필요에 의해 스스로 동참해 달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에 따른 정부의 매칭 지원, 대기업의 사내벤처 활성화 및 인수합병(M&A) 촉진, 민간이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팀스(TIPS) 방식 등이 홍 장관이 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사례들이다.

대기업을 중기부 정책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홀대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중소기업이) 따로 갔지만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이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기술탈취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막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홍 장관은 “단속을 통해 기술탈취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이 거래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해 기술을 탈취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고, 대신 기술을 탈취당할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인치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문화가 바뀌어야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약속어음 제도 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

련해 “약속어음 폐지를 위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차를 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책은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취임 100일간의 자제 평가에 대해선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성과로 평가받고 싶다. 과거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지원을 하겠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소상공인 등에 정책을 집중하겠다. 또 창업기업들을 키워 대기업이 M&A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21일

취임한 홍 장관은 ‘장관이 전국 어디든 간다’는 원칙에 따라 100일간 38회, 사흘에 한번꼴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



동국제약의 ‘치센캡슐과 함께하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

동국제약 “치질, 숨기지 말고 관리하세요”

‘치센캡슐과 치질바로 알기 캠페인’

동국제약은 1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치센캡슐과 함께하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최근 치센캡슐의 TV 광고와 발맞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자주 숨기게 되는 치질을 적

극적으로 관리하지는 내용이다. 특히 치질 질환이 항문 혈관의 문제임을 정확히 알려 방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초기 관리의 필요성을 알렸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TV 광고의 모델이기도 한 배우 김석훈의 입간판을 활용해, ‘치질을 숨기지 말고 관리하자’는 메시지를 ‘치밍아웃’이라는 키워드로 전달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친환경·디자인·안전 다 갖춘 인테리어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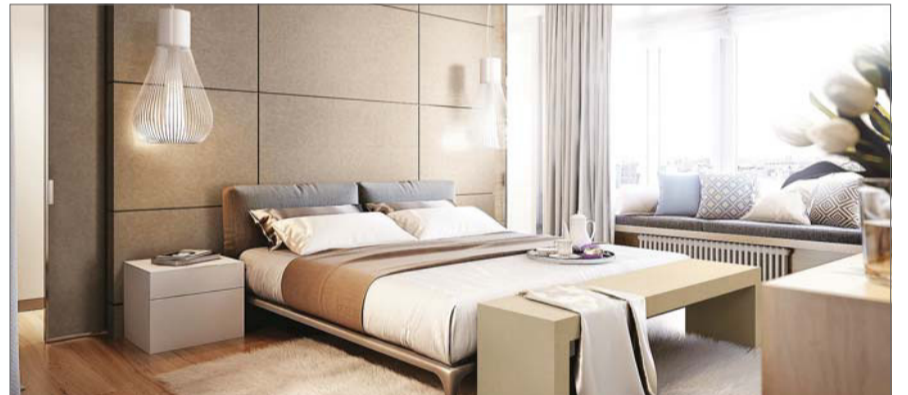
한화L&C ‘보닥’ 신규패턴 64종
‘석재’ 질감·입체감 표현한 라인업

한화L&C가 기능과 디자인까지 업그레이드한 친환경 인테리어 필름 ‘BODAQ (보닥)’ 2018년 신규패턴 64종을 선보였다.

13일 한화L&C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현무암, 테라조, 대리석 등 석재 질감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패턴 다수를 포함한 최대 412종의 패턴으로 구성됐다.

특히 ‘2018보닥’ 전 제품은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톨루엔·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기준 검사를 통과, ‘실내’마크를 획득했다.

전 패턴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준에 준하는 방염성능을 확보해 안전성도 입증받았다.



한화엘앤씨가 출시한 천연가족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살아있는 보닥(NS832, NS834) 필름으로 벽면을 꾸민 침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회사측은 올해 천연 질감을 살린 디자인을 더해 제품 라인업을 확충했다. 특히

‘석재’ 질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내마모성, 내후성 및 내광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자외선, 열, 온도, 습도 등 각종 외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놀텍’ 멕시코 수출... 중남미 공략 본격화

일양약품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일양약품이 개발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신약 ‘놀텍(성분명 일라프라졸·사진)’ 완제품이 멕시코 제약사 ‘치노인’을 통해 수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캄보디아, 에콰도르에 이어 세 번째다. 일양약품 측은 ‘놀텍’의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정을 마치고 발매 첫해 연도 300만분의 수출 오더를 받았으며, 이를 시작으로 놀텍의 안정적인 랜딩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멕시코 1위 제약사 ‘치노인’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총 10개국에 ‘놀텍’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어 이번 수출을 발판 삼아 중남미 여러 주변국들의 수



출할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머징마켓인 중남미 제약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1인당 의약품 지출 및 의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간의 치열한 마케팅 속에서 한국의약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일양약품의 매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공영홈쇼핑 봄철 입맛 돋우는 이색먹거리 판매

다슬기·피꼬막·멍이나물 등

공영홈쇼핑은 13일 ‘해칠초 해초샐러드’, ‘대저토마토’, ‘반건조 우렁’을 시작으로 봄철 이색 먹거리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칠초는 미역·다시마·세모가사리 등 7종 국내산 해초로 구성됐다. 새콤달콤해 입맛을 살려주며 낮은 칼로리로 다이어트에도 좋다. 반건조 우렁은 남해에서 잡은 활우렁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했다.

14일에는 ‘울릉도 멥이나물’, ‘금강 다슬기탕’, ‘순질 오징어’를 판매할 계획이다. 다슬기탕은 금강의 청정 다슬기를 12시간 이상 우려냈다.

15일에는 ‘안동 참마’, ‘여수 피꼬막’, ‘가자미 식해’ 등이 편성돼 있다. 가자미 식해는 가자미에 조밥과 물엿 등을 버무려서 찐다.

16일에도 ‘반건조 대구’, ‘은갈치 굴



공영홈쇼핑이 선보이는 울릉도 멥이나물.

비’, ‘제주 참다래(그린 키위)’ 판매가 예정돼 있다.

공영홈쇼핑 이강현 건식수산팀장은 “기존 홈쇼핑에서 찾기 힘든 우리 우수 농수산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행복을 주는 TV 홈쇼핑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봄철 우리 먹거리 판매 지원 일환으로 ‘호텔 숙박권’과 ‘제주 항공권’ 경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오츠카제약 미국 1위 건식식 ‘네이처 메이드’ 국내 론칭

한국오츠카제약이 13일 미국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 메이드(Nature Made)’를 국내에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네이처 메이드는 45년 이상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원료 선정부터 공정, 안전성, 기능성 등 철저한 품질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제품들을 제공한다.

한국오츠카제약은 네이처 메이드 제품 중 한국인들의 주요 건강 고민에 맞춘 7가지 라인업을 구성해 출시한다. 일일 영양 권장량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설계 및 구성한 것이 장점이다.

/박인용 기자



동물복지 삼겹살·달걀 등 롯데백화점, 건강 먹거리 확대

돼지고기 등 동물복지 식품 선배
박람회 개최... 축산물 할인 판매



동물복지 삼겹살.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무항생제 한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획득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으로 안전한 먹거리 소비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3월8일자 13면 참조〉 '동물복지'는 건강하게 자란 축산물이 사람의 건강에도 안전하다고 판단, 동물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도축과 운반 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동물복지 마크를 운영해 동물복지 인증 심사를 통과한 농장, 운송차량, 도축장을 이용한 상품에만 동물복지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7개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운영 중이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이 95개를 차지하며 돼지 사육 농장은 12개소다. 한우는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과 지난해 '살충제 달걀' 사건 등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들이 주목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곳이 바로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전점에서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박람회'를 열고 무항생제 한우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닭고기를 4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무항생제 한우 등심 1등급(100g)'을 7980원, '동물복지인증' 삼겹살(100g)과 닭고기(볶음용 1kg)를 각 2780원, 7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평창, 정선, 영월 등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자란 무호르몬·무항생제 한우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를 6년째 백화점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와 닭고기 전문매장을 전국 주요점포에 각각 4월, 5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롯데마트와 슈퍼도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와 달걀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015년 대형마트 최초로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 '참프레'와 연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닭고기를 선보였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년 높아지며 올해 1~2월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370% 신장하며 일반 닭고기 판매 신장률 60%를 훨씬 웃돌았다.

롯데슈퍼도 동물복지 닭고기와 달걀 총 9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동물복지 달걀의 경우 올해 2월까지 전년 대비 108% 신장했으며 롯데가 직접 기획한 P B 상품인 '조이스엘 프라이م 유정란'의 경우는 전년 대비 700% 이상 신장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앞으로 친환경 상품과 동물복지인증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RE:CODE)'가 렌탈서비스 'Re:nt the Only One'을 실시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버려질 옷의 재탄생... 재조합해 렌탈의류로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윤리적 소비문화 등 트렌드 맞춰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RE:CODE)'가 한남동에 위치한 시리즈코너 매장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옷의 여정을 테마로 렌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레:코드'는 3년차 재고를 리사이클(재활용)하되 소량생산, 독특한 디자인 등으로 원래보다 가치를 더한 패션아이템을 선보이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다.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재고 의류를 해체하고 재조합 해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국내는 물론 친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인 소비 문화가 정착된 유럽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측은 윤리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번 렌탈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의상을 착용해보고 렌탈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용 가격은 3일 기준 아우터 4만원, 자켓 3만원, 상하의 각각 1만 5000원, 원피스 3만원 등이다. 렌탈서비스 이용 후 구매를 원할 시 해당 착장을 맞춤으로 제작해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렌탈서비스를 이용비용을 1000원부터 고객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불하고 해당 수익 전액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다.

한편 코오롱FnC의 남성 어반 캐주얼 편집 브랜드 '시리즈'도 지난 1월 20일부터 한남동에 위치한 시리즈코너에서 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상품을 일상에서 미리 입고, 생활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일에는 10여명, 주말에는 20여명 정도가 렌탈서비스 문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KT&G '릴'·'핏', 전국 판매망 구축

구매 희망 소비자 14만명 넘어
공급량·판매처 넓혀 수요 맞춰



릴(ℓ)과 핏(fiit). /KT&G

KT&G 필연형 전자담배 '릴(ℓ)'과 전용담배 '핏(Fiit)'이 인기로 힘입어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KT&G는 '릴'과 '핏'을 기존 서울지역에서 전국 6대 광역시와 경기도 6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판매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KT&G '릴'과 '핏'은 그동안 서울지역 편의점 7700개소에서 판매됐다. 오는 14일부터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설치된 '릴 스테이션' 21개소에서 7일 동안 사전판매를 진행하고, 21일부터는 지정된 판매처 3900여 곳에서 정식 출시된다.

지역별로 인천·경기도는 GS25, 대전·세종은 세븐일레븐, 대구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부산·울산은 CU, 광주·광주는 CU와 미니스톱에서 각각 판매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식 출시된 KT&G

'릴'은 스마트폰의 절반 가량인 90g의 무게로 휴대성을 높이면서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하는 등 강점을 갖춰 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담배 '핏'은 기존 일반 담배와 비슷한 맛을 구현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왕섭 KT&G 제품혁신실장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서울 이외 지역에서 '릴'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가 약 14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향후 공급량 확대와 판매처를 확보해 빠른 시간 안에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대상 청정원 '이달의 식단' 서비스 오픈

홈페이지 월별 식단표 제공

대상 청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식단 정보를 제공하는 '이달의 식단'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의 식단' 서비스는 매일 반복되는 식단 구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말 청정원 홈페이지 회원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로 '식단 제공 서비스'가 꼽혔다. 이에 따라 청정원은 균형 잡힌 식단 정보를 제공해 가족의 식사를 책임지는 주부들의 고민을 덜고, 나아가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해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청정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콘텐츠를 제공받아 건강한 제철 재료를 활용한 월별 식단표를 제공한다. 식단뿐만 아니라 각 메뉴의 레시피도

함께 제공된다. 식단 내 메뉴명을 클릭하면 청정원 셰프들의 전문적인 레시피나 청정원 회원들이 직접 등록한 실용적인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찬희 대상 마케팅본부 부장은 "청정원은 이미 '냉장고를 채워줘' 등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먹거리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앞장서왔다"며 "향후 다양한 레시피 콘텐츠를 보강하고 식단별 칼로리나 영양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며 '이달의 식단'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매주 화요일은 '하나로 화요일' 1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화요일'을 맞이해 대표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소속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매주 화요일 '화요일'을 열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농협유통

황사시즌 100억 규모 '공기청정기 대전'

이마트
단독상품·행사카드 추가 할인 등

이마트는 봄철 황사시즌을 맞이해 100억 규모의 대대적인 공기청정기 대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 블루스카이5000을 44만9000원에, 코웨이 AP-1016을 21만9000원에 각각 이마트 단독 상품으로 내놓는다. 행사카드(삼성·KB국민·신한·B C·NH농협·우리·IBK기업·SC이마트) 구매 시 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단독상품 외에 엘지 퓨리케어360, 다이슨 퓨어쿨링 TPO3, 위너스 타워 등도 행사카드 할인, 가격대별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에 만나볼 수 있다.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오염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공기청정기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대비 213%나 급증,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1~2월도 374%나 오르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가정용 위주였던 공기청정기가 최근에는 차량용까지 그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기존 공기청정기 제조 업체인 유니아는 물론 각종 필터 제조로 유명한 3M, 차량용품 업체 불스원 등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한 것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30개 매장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시범 판매한 결과 계획대비 150% 달성율을 기록했다.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마트는 이달부터 관련 상품 판매를 전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신라면세점, 제주 내 어려운 이웃 돕는다

제주지역사회와 나눔사업 MOU 체결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에서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동 주민센터'와 연동 내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불어 한마음 나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신라면세점 제주점 고낙천 점장, 연동 주민센터 김이택 동장,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상봉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명절 나눔 물품 지원, 바자회 수익금 전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연동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초등학교 4·5·6 학년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행사,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다복한 체험(다 함께 행복한 체험을 하자)'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도 지원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제주지역사회와 나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라면세점

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동 주민센터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연동 주민을 찾아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고낙천 신라면세점 제주점 점장은 "제주지

역에서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만큼 제주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동아쏘시오홀딩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재난 키트 전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13일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난안전키트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키트 지원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경북사회복지공동



13일 진행된 재난 안전키트 전달식에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왼쪽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관 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모금회는 동아쏘시오홀딩스로부터 받은 재난 안전키트 500개를 거동이 불편해 지진대피소로 오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전달할 예정이다.

재난 안전키트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상처치료제, 진통제, 감기약, 비상용 보온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이형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일동제약그룹 헌혈의 날 맞아 '사랑의 헌혈운동'

일동제약그룹의 임직원들이 헌혈의 날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운동'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일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해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 임직원들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일을 하는 제약회사의 일원으로서 헌

액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법무팀 류중화 사원은 "요즘 혈액 수급 사정이 좋지 않아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헌혈 하는 것이 건강에 해가 없을뿐더러 내 몸이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기도 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일동제약그룹 측은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사



일동제약 임직원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동제약

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휴온스 한양대에 실습공간 '팹랩' 기부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는 기업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한양대학교에 창의형 실습공간인 '휴온스 FABLAB(이하 팹랩)'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휴온스 팹랩'은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건물 2개층에 총 941㎡의 공간을 리모델링 하여 조성되었다. 공간의 내부는 3D프린터룸, 메이킹룸, 공학입문실습 스튜디오, IoT룸, 학생라운지 등으로 꾸며졌다.

'팹랩'은 제작(Fabrication)과 연구소(Laboratory)의 합성어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디지털 장비로 구현할 수 있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실습공간을 뜻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과 서병기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영무 한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희 기자

신점 [神占] 운세 3월 14일 (음 1월 27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 쥐** 60년생 소망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72년생 짝퐁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84년생 동료의 유혹에 동조되지 마세요. 96년생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소** 61년생 아직 귀하의 때가 아닐 것입니다. 73년생 여태껏 노력을 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85년생 만사가 평온합니다. 97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로울 것입니다.
- 호랑이** 50년생 많은 이득이 따르는 계약 건이 체결됩니다. 62년생 유명한 회사에 특채로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74년생 일이 많아지나 마음은 편안합니다. 86년생 생누구나 때가 있는 법입니다.
- 토끼** 51년생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63년생 물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75년생 고집부리지 마세요. 87년생 부주의로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 뱀** 52년생 커다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64년생 뒷사람의 충고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76년생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는 형상입니다. 88년생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 뱀** 53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65년생 자손들이 기쁨을 줍니다. 77년생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습니다. 89년생 남성은 훌륭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며 여성은 출가를 합니다.

- 말** 54년생 분수껏 행동하는 것이 유익 하리라 봅니다. 66년생 본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78년생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90년생 애정ուն이 길합니다.
- 양** 55년생 귀하 혼자 힘으로 버거운 사업입니다. 67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9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무사튼튼하게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 원숭이** 56년생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68년생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세요. 80년생 겸손함을 잊지 마세요. 92년생 전업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입니다.
- 닭** 57년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유리합니다. 69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81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93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 개** 58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이루어 집니다. 70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 내야 합니다. 82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94년생 성공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 돼지** 59년생 장거리 여행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71년생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83년생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95년생 직장 내에서의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5			4
		1	6		2	
	4			2		3
1						
4		2	5	3	7	8
8				6		3
	2			4		
		8	7			1
5						8

	6	8				1
1		3		4		7
2				7		9
	8		5			
		6			4	7
	3			1		
9		1			5	3
	7					5

스도쿠 정답

2	8	9	6	7	1	5
6	1	3	5	4	8	9
5	9	8	7	1	2	6
7	4	9	6	2	5	8
9	8	1	3	5	7	6
3	5	6	8	9	4	7
1	5	6	2	8	9	7
8	6	7	4	9	1	5
7	9	5	1	6	8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 四季



국운(國運)의 길흉(1)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침체하게 치닫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 등 여러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설왕설래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필자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걱정하며 직설적으로 묻곤 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천기누설과도 같은 민감한 사항을 펼쳐놓고 얘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운기(運氣), 즉 운의 흐름이 사주팔자 자체의 좋고 나쁜 구성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운이 절대적이란 얘기이다. 이러한 운기의 펼쳐짐이 개개인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운(國運)이라 통칭되는 나라의 운기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야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대운이나 세운 등을 태어난 연월일시에 대비하여 길흉을 따진다지만 나라의 국운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통은 주역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주역의 간방을 따진 다음에는 그 나라나 왕조 수장의 운기와 연관 지어 국운을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이런 연유로 춘추전국시대는 물론 그 이전의 주왕조에서는 반드시 주역점을 쳐서 나라의 길흉은 물론 대소사를 치루는 날짜를 정하고는 하였다.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장군도 매일 그 날의 일진을 뽑아보는 점을 쳐서 운기를 살피던 기록이 난중일기에도 보이기도 한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조직이나 사회, 더 나아가 나라의 국운의 길흉을 살피려면 항상 전조증상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불행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밤 사이 안녕"이라는 말처럼 급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사전에 여러 예시적인 현상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에 IMF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충격이 있었다. 그 전에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의 전조가 있었다. 모두 김영삼 문민정부 당시에 있었던 비극들이다. 물론 문민정부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교량으로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결과여서 김영삼 정부에게 그 탓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부통치를 끝내고 희망차게 출발했던 우리 국민의 가슴에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준 비극적인 참사가 있게 된 것은, 경제성장의 자기도취에 취하여 아무렇게 경제문제를 갈무리하지 못한 결과로서 IMF를 맞게 되는 비극의 전조였던 것이라 필자는 말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지식의 기본 값



김연기 역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㉔

금융의 기본 값(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서의 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여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을 알려 주십시오.

A:사실 돈을 제외하고 은퇴설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그럼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돈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의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이라 하였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식은 실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퇴직연금지식의 기본 값은 첫째, 회사

근로기간은 짧아지는데 노후 대책은 한 것이 없고
3층 연금자산관리를 해야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퇴직연금제도도 도입되었는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퇴직연금 교육은 e-메일, 서면, 온라인 등 형식적이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는 해야했는데, 손실이 겁나고
학교에서 금융, 투자, 돈,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고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금융회사와 컨설턴트는 찾기가 어렵고.....

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①DB(확정급여형제도), ②DC(확정기여형제도), ③DB와 DC, ④DB와 DC와 혼합형(DB와 DC의 혼합), ⑤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등 모두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의 제도는 ①DB제도, ②DC제도, 그리고 ③혼합형 제도, ④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중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DB와 DC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선택 할 수 있는지요.

넷째,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혼합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능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그 방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식이 실천 방법을 알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노후를 더욱 두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내외50여군소장



롯데물산, 월드타워 국제 수직마라톤 개최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국제 수직마라톤 대회 '스카이런(SKY RUN)'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5월13일 열리는 스카이런은 롯데월드타워 1층 아래나 광장에서 123층 전망대까지 555미터, 2917계단을 뛰어오르는 국제 수직마라톤 대회다. 2018년에 열리는 총 10개 공식 대회 중 첫 번째로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다. 2017년 열린 대회에서는 호주의 마크 본 선수가 15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스카이런 참가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롯데월드타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롯데물산



국민연금, 장애인들과 평창 패럴림픽 응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2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전국 각지의 장애인 120여명과 함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을 위해 장애인마다 봉사자가 1명씩 동행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경기 관람 후 장애인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神의 직장' 아닌 '甲의 직장'



기지 수첩

채신화 (파이낸스&마켓부)

그들을 만난 건 지난해 9월 금융권 취업박람회였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를 꿈꾸던 그들은 타이탄 정장을 입고 불췌한 구두를 신은 채 길게 줄서 있었다. 면접 차례가 오기까지는 4시간이 넘게 걸렸다. 결국 구두를 벗고 맨발로 섰다. 아무리 '예전만 못하다'고 한들 '신의 직장'은 신의 직장. 그들은 치열하게 임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고 보니 을(乙), 병(丙), 정(丁)... 그날 줄(권력) 없는 이들과 줄을 섰다는 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2015~2017년 은행권 전수 조사를 한 결과 국민·하나·부산·대구·광주 등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채용 청탁자는 권력자의 지인이거나 친인척이거나 VIP였다. 한마디로 '갑(甲)'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탁이 오고 갔다. 청탁자들이 대부분 합격했다. 합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구직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소환, 구속하기 시작했다. 최근엔 BNK금융지주박재경 사장과 BNK저축은행 강동주 대표가 부산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되면서 향후 연루된 금융권 수장들이 줄소환 될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순서가 엉켰다. 감독 기관에서 먼저 옷을 벗는 일이 생겼다. 지난 12일 채용 비리 감독을 진두지휘했던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그는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대학 등

기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 담당 임원에게 동기 아들의 이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추천일뿐 청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최고 경영자의 언급 자체가 채용 압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에선 '누가 누구 감시하느냐'는 식의 비웃음이 나왔고, 최 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사임했다. 그러나 파장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감독 기관의 수장마저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니 금융권의 위상과 신뢰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더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애초에 정정당한 승부가 아니었고, 앞으로의 승부도 심판이 못미덥기 때문이다. 특히 채용으로 입사한 이들은 불이익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날 온종일 면접을 기다리던 그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

/csh9101@metroseoul.co.kr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 컬럼비아대 MBA과정 수강생 방문 한화생명은 13일 컬럼비아대 MBA과정 학생 및 교수진이 스타트업 육성센터인 드림플러스 강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컬럼비아대 MBA 측에서 한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로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을 선정하면서 이루어졌다. 드림플러스 강남에는 라이프스타일, 헬스케어,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대기업, 벤처캐피탈들이 입주했다. 컬럼비아대 MBA 과정 수강생들이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사업 추진 전략 등 입주대표들과 대담을 나눈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KEB하나은행, 하나 해피클래스 인니 봉사활동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하나 해피클래스(Hana Happy Class)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 해피 클래스'는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 대추체인 '모두하나데이'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봉사활동이다. '휴머니티'에 기반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열악한 학습환경에 놓인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실 및 도서관 설치, 시설 보수, 학용품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파견 경계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김대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부단장 김창경 △한국학지식정보센터 문화콘텐츠편찬실장 김진광
-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승진) △

지반공학부 김경수 △감리부 문만석 (상무 승진) △감리부 임종훈 (이사 승진) △건축부 김현석 △도시계획1부 유영필 △도시계획2부 남호준 △도시계획3부 김종남 △단지설계부 정태희 △상하수도1부 이승래 △수자원부 노경희 △감리부 김지호 정화수 박현용 이성삼 안효진 김영일박인철



한국면디파마-대한약사회 안전한 약물사용 위한 MOU

한국면디파마는 대한약사회와 13일 대한사회관에서 '약국에서의 감염 예방-상담 활성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에 기여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목적이 있다. 한국면디파마 이명세 회장(오른쪽)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면디파마

부음

- ▲차봉수씨 별세, 차영주(KBO 육성위원)씨 부친상 = 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15분. ☎ 02-2258-5940
- ▲최수목씨 별세, 조길형(충주시장)씨 장모상 =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30분 ☎ 02-352-444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이장규
 인 쇄 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제3914호 / 0008호



정식품, 베지밀 온도계 통해 모금된 두유 소외계층에 전달 정식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모금된 2300여개의 두유를 보육원 및 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는 정식품이 지난 2012년 시작한 사랑나눔 캠페인부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총 2252명이 참여했다. /정식품

막오른 채용시즌, 마감일정 놓치면 낭패

삼성 20일, SK 23일, CJ 19일, 마사회 21일 접수 종료

바이킹 챌린지·RESPECT 등 스펙 안보는 블라인드전형 눈길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들이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SK텔레콤 등 일부 계열사의 'SK 바이킹 챌린지 전형'과 CJ그룹의 'RESPECT전형' 등 스펙을 보지 않는 탈 스펙 전형이나 블라인드 전형이 눈길을 끈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삼성전자, SK그룹, CJ그룹, 한국마사회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의 올해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선발을 위한 입사지원서 접수가 오는 19~23일 마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가 오는 20일 17시 마감된다. 모집부문은 CE/IM부문(SW개발/회로개발/기구개발/재료개발, SCM/물류 등), DS부문(반도체설계/공정개발/설비/시스템개발/SW개발, 생산관리 등) 3급 신입사원이다. 영어회화 자

격은 OPIc이나 토익스피킹에 한해 적용된다. 단 모집 직무별 필요한 영어 등급이 상이하다.

SK그룹은 올해 상반기 인턴과 신입사원 모집에 나섰다. 지원서는 오는 23일 SK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그룹별로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SKC 등에서 신입사원을 SK텔레콤, SK건설, SK브로드밴드 등에서 인턴사원을 모집 중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후 필기전형(SKCT), 면접전형을 거쳐 신입, 인턴사원으로 최종 합격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SK그룹 필기전형 SKCT는 4월 22일 진행된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주식회사(C&C)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는 학벌이 아닌 도전자의 스토리를 평가하는 탈 스펙 채용 전형 'SK 바이킹 챌린지'도 진행된다.

CJ그룹도 오는 19일까지 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모집부문은 CJ제일제당, CJ푸드빌, CJ E&M, CJ 올리브네트웍스 등 13개 계열사

〈주요 대기업의 2018 상반기 공채 일정〉

기업	공고명	마감일
(주)LF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3/12~3/27 18시
(주)지투알	2018년 신입사원 공채	3/12~3/23 11시
삼성SDI(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한화케미칼(주)	2018년 상반기 신입 채용(재경, 해외영인, 인사)	3/12~3/30 15시
한화건설	2018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3/12~3/23 15시
삼성SDS(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전기(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디스플레이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삼성전자(주)	2018년 상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	3/12~3/20 17시
애경그룹	2018년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	3/9~3/15 18시
팜한농	2018년 상반기 신입공채	3/8~3/21 14시
LG이노텍(주)	2018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3/8~3/21 17시
SK그룹	2018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모집	3/8~3/23
(주)마이다스아이티	2018 SK 바이킹 챌린지	
(주)마이다스아이티	2018 상반기 마이다스아이티 신입사원 열린채용	3/7~3/21 18시
판토스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3/7~3/21 9시
하이트진로(주)	2018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	3/7~3/20 18시
CJ그룹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3/7~3/19 18시
한국마사회	2018년도 신입사원 채용	3/7~3/21 14시
현대오일뱅크(주)	2018년 상반기 신입 인턴 사원 공개 채용	3/6~3/19 15시

/자료=잡코리아

(예정)장교 전형', '인턴사원 모집 전형'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 CJ그룹은 오는 16일까지 전국 대학 등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일정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총 37명을 뽑을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1일 14시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행정, 재경 등), 영업직(장외행정), 기술직(시설, 전산 등) 신입사원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합격해야하고 연령이나 학력 제한은 없다. 전형절차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1차직무 역량면접, NC스기반 심층역량평가, 2차(최종) 임원면접, 신체검사 및 임용 순이다.

이밖에 애경그룹이 15일 18시까지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하는 등 LF,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LG이노텍, 하이트진로, 현대오일뱅크 등이 이달 하순까지 상반기 인턴이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각 부문 신입사원이다. 부문별 우대사항은 상이하고, 모집기간 내 1개 공고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결과발표 순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CJ그룹은 일반 신입사원 전형과 함께 'RESPECT 전형', '전역

| 대학가 소식 |

서울대 허은영 교수, 한국혁신학회장 선임

서울대학교는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영 교수(사진)가 지난달 22일 열린 한국혁신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올해 3월부터 2년이다.



한국혁신학회는 2005년 창립 후 현재 3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과학·공학·경제학·정책학 등 학자들이 모여 과학기술과 기업 및 산업의 혁신은 물론 공공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을 주제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회지로는 등재지인 '한국혁신학회지(Innovation Studies)'를 발간한다.

이화여대-하버드대

韓 현대 리더십 논하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을 초청해 10일~18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2017-2018 이화-하버드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서울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하버드대가 미국과 아시아 상호간 깊은 이해를 가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울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사회의 현대 리더십'을 주제로 하버드대 학생 11명과 이화여대 학생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특강, 기관 견학, 비무장지대 및 공동경비구역 방문 등의 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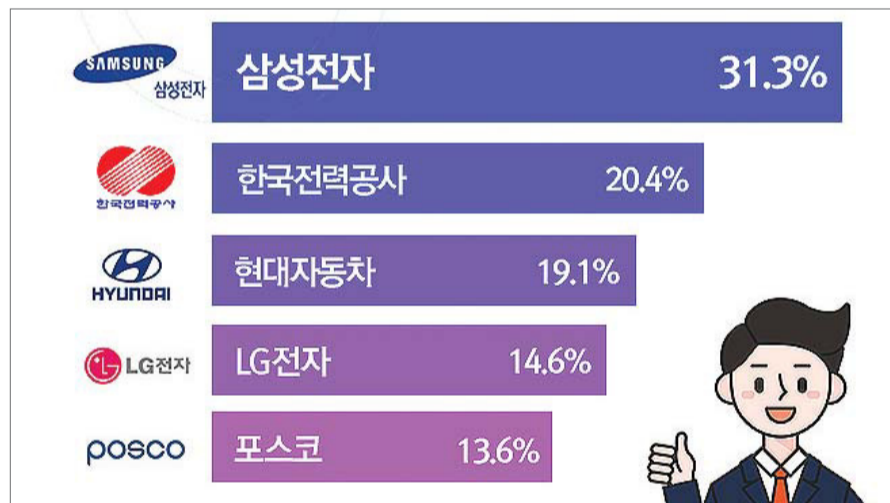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 삼성전자... 한전·현대차 뒤이어

작년 최대이익 SK하이닉스 9위에 선호하는 주요 요인, 복지·복리후생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위로 삼성전자가 뽑혔고, 작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낸 SK하이닉스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직자들은 선호기업 선정시 사내복지와 복리후생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www.saramin.co.kr)은 구직자 1092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복수응답)을 묻은 결과, 삼성전자(31.3%)가 응답률 1위로 가장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공사(20.4%), 현대자동차(19.1%)가 2,3위를 차지했고, 이어 ▲LG전자(14.6%) ▲포스코(13.6%) ▲한국가스공사(11.6%) ▲

〈구직자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 톱5〉



구직자 1,092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사람인

기아자동차(11.3%) ▲SK이노베이션(11.1%) ▲SK하이닉스(10.7%) ▲CJ제

일제당(10.3%)가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위였던 현대차

동차가 올해 3위로 한 계단 내려왔고, 작년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한 SK하이닉스가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62.4%)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높은 연봉'(55.1%), '회사비전'(33.3%),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31%), '대외평판 등 기업 이미지'(23.6%), '업계 기술력 및 전문성 보장'(21.1%), '정년보장 등 안정성'(20%)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구직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학력'(21.2%)을 꼽았다. 이어 '인턴 등 실무경험'(20.8%), '인재상 부합'(17.6%)이 뒤를 이었으며, '출신학교'(9%), '인맥'(8.7%), '외국어능력'(7.3%), '전공'(6.8%)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 바로잡는다

교육부 '日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등 대응방안 마련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교육의 내용과 교과서 검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 차원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남상구·홍성근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안범 고려대 교수, 신주백 연세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

홍성근 박사는 주제발표문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연구와 독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수소 잡아두는 '초미세 집'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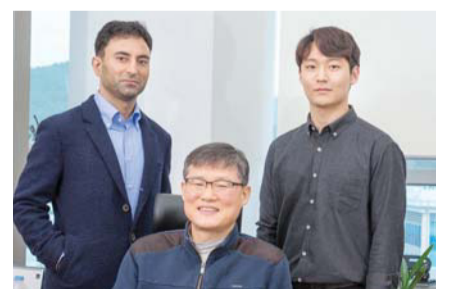
유니스트 백종범 교수팀 수소 저장 우수한 유기구조체 개발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면 물만 배출하는 등 무공해 에너지원이지만 저장해두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목된다.

유니스트(UNIST·정무영)는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백종범 교수팀이 세 방향으로 성장시킨 '초미세 유기구조체(3D-CON)'를 개발해 수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백 교수팀이 개발한 물질은 가볍고 튼튼하면서 수분 등에도 안정적인 유기고분자를 이용하고 있고, 수소 저장 성능도 우수해 주목을 받는다.

백 교수는 "오랫동안 다양한 물질이 제안됐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기 물질



'3D-CON'을 개발한 유니스트 연구진. (왼쪽부터) 자비드 마흐무드 교수, 백종범 교수, 김석진 연구원. /유니스트

이 유리하며, 특히 이번 물질은 수소 흡착 능력이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기체 저장 물질은 수소자동차와 가스 센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미래 에너지 소재로 유기구조체를 응용할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우리 기술로 세계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신이 내린 재능 앞에 무릎꿇은 범재 '세기의 질투'

action Review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아마데우스'

살리에리 지현준·한지상·이충주
모차르트 조정석·김재욱·성규
6인조 오케스트라 원곡 직접연주



연극 '아마데우스' 포스터 /클럽서비스



연극 아마데우스 공연 사진 /클럽서비스

창작극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작품이 등장했다. 등장만으로도 시선을 끄는 입체적인 캐릭터, 화려한 무대, 아름다운 음악 선율까지 더해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연극 '아마데우스'다.

음악은 향한 갈망은 넓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극과 극을 이루며 살다간 신이 내린 능력의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와 자신의 평범함을 고통스러워하는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의 이야기가 화면이 아닌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이야기는 1985년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로 국내 관객에게도 익숙하다. 이 작품은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피터 셰퍼의 상상력으로 시작됐다. 영화 보다 앞선 1979년 영국 내셔널 씨어터 올리비에홀에서 초연된 '아마데우스'는 이듬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됐으며 1981년 토니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5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

다. 2000년 리바이벌 프리덕션 또한 54회 토니어워드 리바이벌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기를 넘어서도 인정받는 명작의 힘을 보여줬다.

'아마데우스'가 많은 매니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한 예술가의 삶만 조명한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두 음악가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예리한 갈등을 작품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 사이, 예술에 있어서 세간의 인정과 인기 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작품성과 흥행성까지 인정받은 '아마데우스'는 국내에서 이 지나 연출 손에 의해 재탄생됐다. 이 연출은 "평범한 재능

의 비애'를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치열한 드라마로 풀어내겠다. 원작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음악과 연주를 풍성하게 사용하겠다"고 연출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연극 '아마데우스'의 구조는 영화와 동일하다. 막이 오르며, 늙은 살리에리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한다. 살리에리가 처음 모차르트를 만난 곳은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이었다. 당시 살리에리는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과 품위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자신의 평범한 실력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모차르트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세운다. 실제로 모차르트는 4살 때 처음 피아노를 쳤고 5살에 교향곡을,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했다. 그에 비해 살리에리는 당대에는 오랫동안 궁정 작곡가로 활동하

면서 명성은 얻었지만, 그뿐이었다. 살리에리라는 인물은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이 나온 이후 천재성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을 두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알려졌다.

어쨌든 이 작품의 화자는 살리에리다. 살리에리의 기억이 모아져 극의 스토리가 완성되는 만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살리에리를 연기하는 주인공의 힘은 대단하다.

존경받는 음악가였지만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며 타고난 재능에 대한 인정, 경이로움, 그리고 질투와 번민을 동시에 느끼는 살리에리 역에는 지현준, 한지상, 이충주가 캐스팅됐다.

긴 대사를 거침없이 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정작곡가라는 위엄과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를 적절히 잘 버무린다.

그리고 특유의 웃음소리, 천부적인 재능과 방탕한 사생활을 오가는 세기의 캐릭터 모차르트는 조정석, 김재욱, 성규가 맡아 열연한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중흥무진 활약한 조정석의 7년만에 연극 무대 복귀는 팬들의 기대감이 높인다. 연기라면 뒤지지 않는 세 배우의 각기 다른 색의 모차르트를 기대해도 좋다.

연극 '아마데우스'가 특별한 이유는 배우의 연기와 스토리때문만은 아니다. 귀를 호강시켜줄 20여곡이 공연 내내 흘러나온다.

20인조 오케스트라의 MR을 사용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무대 위에는 6인조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직접 연주하며 모차르트의 원곡 느낌을 살려낸다. 뮤지컬이 아닌데도 창작 넘버가 삽입돼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게다가 직접 피아노 연주까지 하니 눈을 땔 수가 없다.

여기에 나레이션 역할을 맡아 극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작은 바람들' 캐릭터는 각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다양한 안무로 음악을 표현해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연극보다 특별한 연극 '아마데우스'는 4월 2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만날 수 있다.

최정 9단, '센코컵' 초대 챔피언 도전

오늘부터 여류최강전 출전

최정 9단이 센코컵 초대 챔피언에 도전한다.

최정 9단은 14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도쿄 일본기원에서 열리는 '센코컵 월드바둑여류최강전2018'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랭킹 1위 최 9단과 중국 랭킹 1위 위즈잉 6단을 비롯해 주 최국 일본의 세이민 6단, 무카이 치아키 5단, 후지사와 리나 3단, 뉴에이코 2단 등 4명이 출전한다. 일본 선수 4명은 자국 여자기전인 2회 센코배 여류최강전 4강 진출자다. 이와 함께 대만의 헤이자자 7단과 유럽의 나탈리아 코발레바 아마 5단이



최정 9단 /한국기원

나선다. 지난 1월 입신 등극 후 첫 세계대회에 나서는 최정 9단은 지난해 국제무대 싸슬이 우승의 기세를 이어 다시 한번 세계무대 여제(女帝) 임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김민서 기자

"흘날리는 벚꽃잎이~" 어김없이 돌아온 봄캐롤

버스커버스커 '벚꽃 엔딩' 차트 진입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차트에 진입했다. 봄 기운이 겨울 바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 곡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차트에 등장한다. '벚꽃 좀 비', '벚꽃 연금'이라는 별명이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벚꽃 엔딩'이 차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달 초다. 지난 3일 음원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 83위에 첫 진입했으며, 13일 오후 1시 기준 79위까지 올랐다.

이 곡이 발매된 것은 지난 2012년 3월 29일이다. 발매 후 6년이 지났지만 매년



봄마다 차트 역주행을 달리며 대표적인 '봄 캐롤'로 자리매김 했다.

'벚꽃 엔딩'이 주목 받는 이유는 매년 차트에 재진입하면서, 동시에 최상위권까지 오르는 유일무이한 곡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발매 된 곡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도 차트 최상위권까지 진입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또한 계절이나 특정 기념일을 겨냥한 곡도 차트 진입

이후의 성적은 '순환' 정도가 성공한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벚꽃 엔딩'과 함께 매년 봄이면 차트에 등장하는 곡들도 있다. 로이킴의 '봄봄봄', 하이포-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디핑크의 'VIVA 청춘', 십센치의 '봄이 좋냐?' 등이 대표적이지만, 순위 경쟁만 놓고 봤을 때 '벚꽃 엔딩'의 적수는 아니다.

어느새 일곱 번째 봄을 맞이한 '벚꽃 엔딩'. 이 곡이 차트에 진입하면 봄이 시작된다는 말도 있다.

봄의 고유명사로 자리매김한 이 곡이 올해는 또 어떤 성적을 새로 쓸지 기대를 모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3월 14일

음력 : 1월 27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45 | 해질 / 18:38

지역별 날씨: 연천 8/17, 동두천 8/19, 가평 5/19, 파주 7/17, 서울 9/20, 양평 7/20, 인천 8/16, 수원 9/19, 용인 9/19, 평택 8/21, 백령도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박병호(넥센 히어로즈)가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 한화 이글스와 방문경기에 선발 출전해 3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왕'의 복귀를 알렸다.
- ▲ 손아섭(롯데 자이언츠)이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범경기 LG 트윈스와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솔로 포를 터뜨렸다. 이날 개막한 시범경기의 1호 홈런이다.
-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내주 세계랭킹에서 24위에 오른다. 이로써 니시코리 게이(일본)를 제치고 '아시아 톱 랭커'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 선수 역대 최고 랭킹이다.
- ▲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 출전해 2타수 1안타 2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364(22타수 8안타), 출루율은 0.500까지 올라갔다.
- ▲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13일 막을 내린 가운데 최우수선수(MVP)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주 DB 두경민, 안양 KGC 인사공사 오세근, 전주 KCC 이정현의 삼파전 양상이다.
- ▲ 박성현, 전인지, 고진영 등이 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첫 미국 본토 대회인 파운더스컵에 출격한다. 박인비, 미셸 위 등도 우승 도전장을 내민다.

서울교통공, 스페인 TMB와 ‘지하철 디지털화’ 맞손

스마트모터스·빅데이터 분석 등 각각 자체개발 운영시스템 교환 동경급행전철과는 내진설계 협약

서울교통공사가 해외 지하철 운영기관과 손잡고 전동차모니터링과 무인운전시스템을 들이는 등 지하철 디지털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사와는 지하철 디지털화 로드맵 구축을 위해, 동경급행전철과는 내진급행설계와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TMB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운영하는 복합 교통기관이다. 지하철 8개 노선, 158개 역을 관리하고 있고 무인운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일평균 수송인원은 130만 명에



지난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 본사에서 엔리크 카냐스 TMB 최고 경영자(왼쪽)와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이 업무 협약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달한다.

공사와 TMB는 각각 자체 개발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서로의 지하철에 시범 설치해 성능을 검증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

으로 기계설비 상태를 분석해 유지보수하는 ‘서울교통공사 기계설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SAMBA)’을 TMB에 제공한다.

TMB는 전동차 내 승객 혼잡도와 전동

차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모터스(Smart Motors)’ 시스템을 공사 측에 전한다. TMB가 시행 중인 지하철 무인 운전과 서울교통공사가 개발 중인 터널 시설물 자율 점검 분석, 전기실과 변전실 시설물 감시 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문에서도 협력한다.

승강장 안전문 구축과 운영 기술 공유도 이어간다. 교통공사는 약 4년간 1만 9000개 이상의 승강장 안전문 모듈을 구축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있다. TMB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안전문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실증 과정을 거쳐 미래 지하철에 표준 적용될 수 있는 지하철 디지털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추진할 전략을 세운다.

공사는 또 내진보강 기술력을 보유하고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펴고 있는 동

경급행전철과도 협력기로 했다. 동경급행전철의 내진보강 시공 기술을 공사가 추진 중인 내진보강 설계에 적용하고 동경급행전철 기술자를 초청해 자문한다. 시부야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경급행전철과는 역사 지상부지, 차량기지, 환승센터 등 지하철 연계 복합개발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동경급행전철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공사 상호기술교류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인정받는 바르셀로나 TMB사, 동경급행전철과 기술, 문화, 해외사업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글로벌 넘버 원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서울시내 아파트 4256곳 조사 단지 당 0.09명·총 305명 감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단지 당 0.0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2월 시내 4256개 아파트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던 경비노동자 수가 지난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00명 당 1.26명이 줄어든 수준으로, 당초 우려된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감소된 단지는 171곳이었다. 인력 감소는 세대 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많았다.

시는 조사 대상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67%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 원)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하루 근무시간은 지난해 11.36시간에서 올해 10.89시간으로 28.2분 줄었다. 휴게시간은 지난해 442.1분에서 올해 481분으로 38.9분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노동자의 통상 시급은 지난해 6541원에서 올해 7588원으로 1047원 늘었다. 시는 경비원이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는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도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 인상분 13만5000원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13만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였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층 사례조사는 15일부터 한 달 간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4개 권역별 2~3개 단지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거부한 단지, 해고가 나타난 단지 등이 포함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오빠라고 불러” 면접 막말·성희롱 만연

구직자 75% ‘면접 갑질’ 경험

‘입사하면 서울에서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거 아니냐’, ‘결혼할 나이가 한참 지났 거 같은데, 본인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실물보다 사진이 이쁘네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 면접장에서도 성희롱과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최근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갑질’ 설문조사 결과, ‘면접에서 면접관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4.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면접자들이 느낀 갑질의 유형은 다양했다.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가득 찬 질문’이 17.1%로 1위를, 이어 ‘도를 넘는 사적인 질문(인맥조사, 집안환경, 경제상황

등/14.2%), ‘답변을 무시하는 태도(비웃음, 무관심/12.5%)’ 순으로 상위에 올랐다. ‘예고 없이 긴 대기시간’(8.9%)과 ‘갑작스러운 면접일정 변경’(5.1%)등 면접일정과 관련한 갑질도 많았고, ‘모욕적인 질문’(7.4%), ‘인신공격’(6.1%), ‘반말’(6.5%), ‘막말 및 폭언’(5.1%) 등 무례한 경우는 예사였다. 특히, 성차별과 성희롱 갑질 사례로 입력된 주관식 답변들은 그 사태가 심각했다.

주관식 답변을 보면, ‘어차피 어리니까 오빠라고 불러’, ‘사진은 예쁘게 나왔는데 실물보다 사진이 이쁘네요?’, ‘여자가 손을 묻히면 시집 못 갖 텐데 괜찮겠어요?’, ‘3년동안 애 안 낳을 각오 있으면 알려주세요’ 등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별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암시하는 발언, 결혼과 출산에 관한 고정관념이 내재된 발언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내달 8일 개통

서울시는 종로1~5가에 2.6km 구간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오는 4월 8일 개통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같은 구간을 따라 자전거만 달릴 수 있게 한 차로다. 차선, 안전표지, 노면 표시를 통해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야간에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태양광매립형 LED등을 설치했다.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주변에는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 운행을 돕는다.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하면 자전거 수송부담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청계천과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면 전용차로가 자전거 도로망 허브로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차로 개통을 기념해 자전거 운전자 3000명이 종로~흥인지문~청계천로~종로 사이의 6km 도심순환 구간을 라이딩하는 ‘도심 라이딩 퍼레이드’를 연다.

퍼레이드는 자전거와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자전거 안전장비를 갖춘 15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늘

2.6km 구간에 안전시설 설치 개통기념 ‘도심 라이딩 퍼레이드’

부터 선착순으로 3000명을 모집하며, 참가 접수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전거가 없는 시민은 퍼레이드 당일 오전 9시 종로 출발지점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대여하면 참여할 수 있다.

순환도로를 주행한 후 도착하는 출발지점(종로)에서는 ‘종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진행한다. 포토 존, ‘따릉이’ 체험공간, 문화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퍼레이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서울 도심 한복판을 시원하게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금천 직장맘 지원센터가 공덕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하는 모습. /서울시

잠실·공덕 등 13개 역서 ‘직장맘 현장상담’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직장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 등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상담은 광진·금천·은평구 센터가 매주 수·목 오후 5시~8시 잠실·가산디지털단지·공덕·여의도 등 13개 역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3년 8월 당산역에서 시작한 현장상담은 매일 13개 역에서 각 센터 상근 노동자들이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연차휴가와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노동권 전반과 보육정보, 관련기

관 연계도 진행한다.

광진구 센터는 서울교통공사 잠실서비스안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8호선 라인의 8개역(문정역, 암사역, 강동구청역, 잠실역, 석촌역, 송파역, 가락시장역)을 순환하며 상담을 진행한다.

금천구 센터는 직장인들이 밀집한 총 3개역(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4·6호선 삼각지역, 5·6호선 공덕역)에서 현장 상담한다.

은평구 센터는 총 2개역(5·6호선 여의도역, 3·6호선 불광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이범종 기자



[유통]
롯데백화점,
동물복지 식품 선배
L1



Life

[메트로]
서울교통공사,
디지털 사업 본격화
L7



버려졌던 석유저장고, 기름 걷어내고 문화 채우다

한때 버려졌던 석유 저장 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돌아와 서울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축구장 22개(14만㎡) 면적을 자랑하는 '문화비축기지'가 있다. 23일 찾은 이곳은 'T1~T6'으로 불리는 6개의 원통형 저장고(탱크)가 매봉산 기슭마다 세워져 있었다. 정문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문화광장 한가운데서 바라보면, 6개의 탱크가 울타리처럼 이곳을 둘러싸고 있다.

네 살짜리 딸과 나들이를 나온 최현정(37·여) 씨는 "이곳이 41년이나 된 석유 저장지라고 생각하니 상상이 안간다"며 "진짜 빈티지 조형물 같다"고 감탄했다.

문화비축기지는 석유 파동 이후 1976~1978년 만들어진 마포 석유 비축기지였다. 5개 탱크에 석유 6907만 l 을 보관하던 이곳은 1급 보안시설로 분류돼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다. 2000년대 들어 한일 월드컵 경기장 건설로 완전 폐쇄되면서 일부 시설만 공영주차장으로 쓰였다. 이후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던 서울시는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연장과 전시관을 갖춘 문화비축기지를 열었다. 이곳은 석유 탱크들과 내외장재, 용벽 등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되살아나는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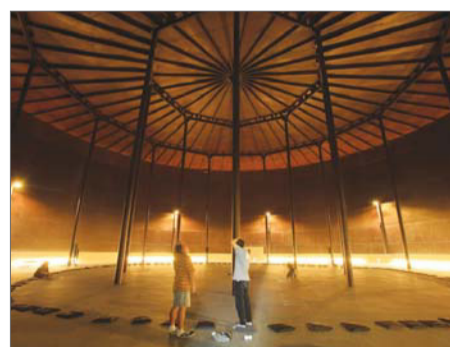
③ 문화비축기지

버려졌던 석유 저장 시설
시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영화 상영·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람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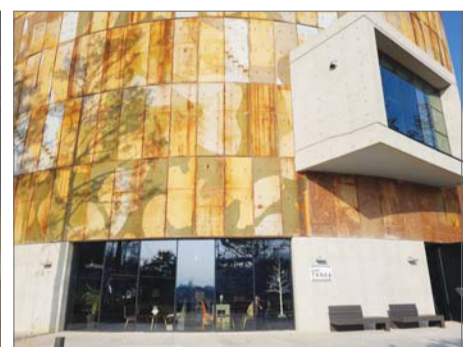


T1 유리 파빌리온 내부.



/문화비축기지

T4 복합문화공간.



T6 커뮤니티센터 외관.

/사진=유재희 기자

◆혐오시설에서 '빈티지 문화공간'으로
이날 가장 먼저 찾은 'T1 파빌리온'은 과거의 용벽과 현재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었다. 천장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모습이 시선을 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던 한 방문객은 "이 근처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도 못 꿰다"며 "리모델링을 넘어선 리노베이션"이라며 연신 셔터를 눌렀다.

고대 그리스의 낡은 극장을 연상케 하는 'T2 공연장'은 원통형 저장고의 특성을 살려 야외 원형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 지하에는 실내 공연장도 있다.

한때 기름으로 가득했던 유류저장탱크의 모습을 살펴보려면 'T3 탱크원형'으로 가면

된다. 직경 40m에 높이 15m 규모인 이곳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늘고 긴 파이프 기둥이 숲처럼 꾸며진 'T4 복합문화공간'은 실내 전시·공연 공간으로 쓰인다.

이처럼 석유 비축 기지였던 이곳이 오늘날 문화 공간으로 변신해온 40년 세월을 살펴보려면 'T5 이야기관'을 향하면 된다.

'T6 커뮤니티센터'는 1·2번 탱크에서 해체된 철관으로 조립한 신축 건물이다. 이곳은 강의실과 회의실, 카페 등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T6에 있는 카페 'TANK6'는 빈 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인근 회사원들은 이곳을 아늑한 기획 공간으로 애용하고 있었다.

회사원 김미소 씨는 "팀원들과 회의 하러 이곳에 자주 온다"며 "T6 공간을 빌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결과 발표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래동에서 두 번째로 이곳을 찾아왔다는 남정석 씨도 "혐오시설이던 장소가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좋은 예"라며 미소 지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발길 이어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으려는 서울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원형극장 T2에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다. T6의 문화아카이브 경사로는 실내 썰매장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T0 문화광장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팽이치기와 굴렁쇠 등 민속놀이체험마당이 열렸다.

이달 23일~25일에는 2017년 공연예술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결과발표회인 '창작실험-과정과 공유'가 진행됐다. 쇼케이스와 피칭, 전시 등 40개가 넘는 다양한 공연과 관객과의 대화 등이 이어져 수동적인 관람이 아닌 적극적인 소통이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민이 뽑은 '잘생긴 서울' 2위에 선정된 문화비축기지는 같은해 9월~12월 18만명이 방문했다.

이보현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 운영팀장은 "5월과 10월에는 서커스 페스티벌과 서울거리 예술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께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범중·정연우 기자 joker@metroseoul.co.kr